계간《간디IN》2018년 가을 호(통권 47호)

간디IN

2018 가을

더불어 행복한 사람 제천 간디학교 gandhischool.org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자꾸 자꾸 무너져.

글_김재하 삽화기자(4학년)
그림_권윤서(3학년)

여기는 제주 비자림로. 사람들이 엉켜 분노와 슬픔이 뒤섞입니다. 나무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나무를 베어 도로를 넓히려는 사람들 속 느껴지는 부끄러움과 무력함. 오늘도 배워갑니다. 이곳이 학교입니다.

이한결 기자(5학년)

간디인

2018 가을

제천 간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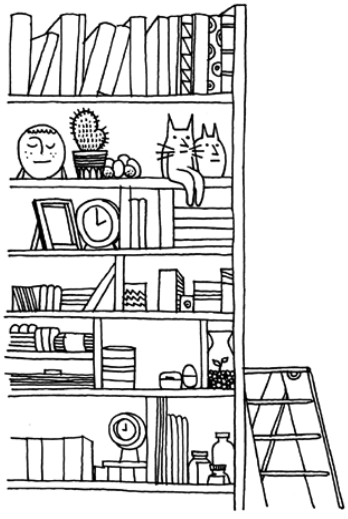


그림 · 미스터 김

차례

간디인 갤러리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자꾸자꾸무너져. :: 김재하 삽화기자(4학년)

02 여는 글 마감 날 써보는 여는 글 :: 박우제 편집장(4학년)

06 특집 로망은 현실이 아니다!! :: 조예나 기자(1학년)

선생님 딸(아들)은 어디 학교 다녀요? :: 김서준 기자(2학년)

어디어디? 뭐가뭐가? :: 이성민 기자(3학년)

학교는 잠시 벗어던지고 :: 이성민 기자(3학년)

학교(學校)...그것이 알고 싶다. :: 윤수민, 조연지 기자(4학년)

26 m.s.g 우리가 봐야 할 제주도 :: 이재형 기자(5학년)

31 반가워요, 후원인 제주에서 평생 살기 :: 최유경 기자(5학년)

35 사설 우리가 도난당한 것 :: 이한결 기자(5학년)

41 화제의 인물 그녀의 옷장 속으로 :: 권윤서 기자(3학년)

53 개 요즘 잘 지낸대? 쌍둥이 이야기 :: 이병건

57 아, 제 점수는요 유미의세포들, 죽음에 관하여 :: 김윤하(선생님), 진주열(6학년)

60 간디인의짧은소식

62 스케줄러

64 기자 후기

〈마감 날 써보는 여는 글〉

박우제 편집장(4학년)

섭씨 40도… 더운 걸 넘어 쪄 죽을 것만 같던 여름, 모두 잘들 보내셨나요? 덥디덥던 덕산은 벌써 단풍 물이 들기 시작했으며 찬 바람이 쌩쌩 붑니다. 가을이 왔나 봅니다. 시간은 어찌나 빠른지, 어리숙하던 신입 기자는 편집장이 되어 일상다반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마감 막바지가 되어가는 지금에서도 편집장이라는 직책은 저에게는 많이 어색한 자리인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일상다반사를 잘 이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글쎄…? 뭐 어찌 됐든 평가는 모두의 몫으로 남겨두고 '간디IN' 가을 호를 출발시켜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바빠졌습니다. 수업, 학생자치회(평의회, 동아리, 교육소위 등), 삼간디축구대회 준비, 숙제와 기타 할 일들, 학급 반 일정 등으로 저의 시간표는 어느새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일상다반사까지 같이 이끌어 줘야 하니 조금은 머리가 아픕니다. 몸살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젯밤 학교에서 못한 숙제를 마저 하느라 늦게 자서 그런 듯합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건 생각보다 체력소모가 엄청나더군요. (헉헉)

나름 바쁘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5학년 기자들과 3학년 기자들의 비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베테랑이자 짬밥을 고봉으로 쌓아 올려 먹은 5학년 기자들에 비하면 더더욱 별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5학년 기자들의 일정을 잠시 살펴보자면 주제여행으로 2주간 제주도를 다녀온 후 밀려버린 일들, 가을축제 준비, 각종 부서장 위원장 역할, 인턴십 준비 등등 어마어마한 일정입니다. 생각해보니 학교 대부분의 일이 5학년한테 쏠려있더군요. '아마도 이번 교육과정 개편의 최대 피해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드는 수준의 일정입니다 그리고 3학년 기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3학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논문' 입니다. 논문을 쓰고 있는 3학년들은 마감일 전날인 오늘마저 작품발표회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감 하루 전날 편집장인 저는 매번 '저렇게 바쁜데 과연 내가 과연 재촉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필자는 본인의 기사와 사투하며 적당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만큼 좋은 기사를 작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호를 쓸 때 일상다반사 기자들은 그럴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감 당일 날 제 메일함

에는 이담 삽화 기자(2학년)가 보내준 스케줄러와 몇몇 기자들의 기자 후기 빼고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편집장되서 만드는 첫 '간디IN'은 결국 마감을 1주일 정도 미루고서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가을 호에서 보여준 일상다반사 기자들의 모습을 모범형, 아쉽형, 뻔뻔형, 3가지 유형으로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파워레인저, 독수리 5형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 일상다반사의 뻔뻔 5인조를 소개하고 싶군요. 우리의 뻔뻔 5인조는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브리핑 시간 때 말만 거창하게 늘어놓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간디학교의 풀리지 않는 문제 도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사설을 써준, '이제 시작이지만 결국 나는 끝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말을 마감이 3일 전에 하는 그들의 '머리' 이한결 기자!, 5학년의 제주도 주제여행 기사를 맡았으며,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을 넘어서 '시작은 80%다'라고 말하는 '오른팔' 이재형 기자!, 간짧소를 맡아 간짧소에 구성까지 다 짰지만 일을 시작하질 않는, 짱구만 잘 굴리는 '왼팔' 김담 사진기자!, 화제의 인물을 맡아 '이따 인터뷰할 거니까 걱정하지말어~'라며 매번 걱정하는 저를 밀쳐내는 척척(斥斥)박사 '오른손' 권윤서 기자!, 간디인 갤러리를 맡아 그림을 고르는 것만 3주를 보낸 원래는 마감 잘 지킨다는, 뻔뻔의 대가 '왼손' 김재하 삽화기자!

"이 모두가 모여 일상다반사를 수호한다!"

뻔뻔형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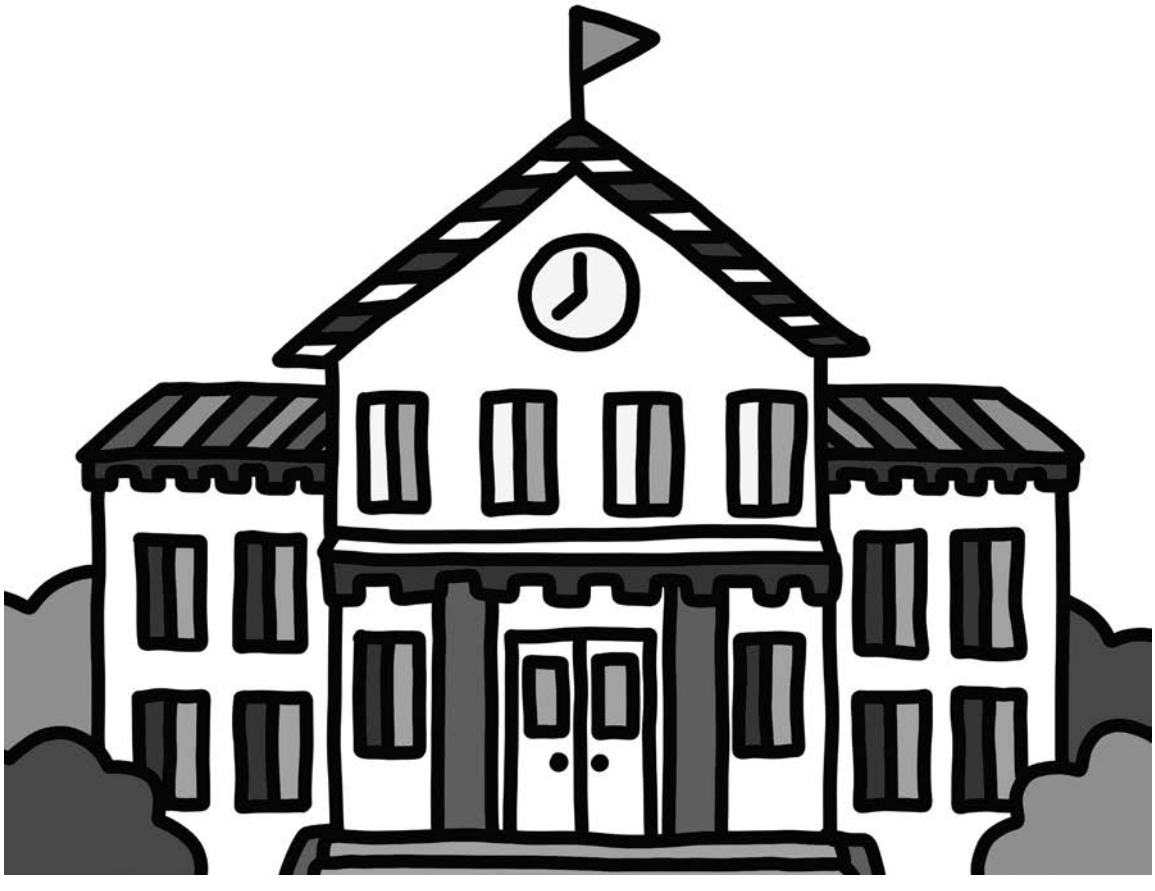
아쉽형을 소개합니다. 아쉽형에 속한 기자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기사를 다 하지 못한 체 마감을 넘겨 아쉬움이 남는 기자들을 모아 놓았는데요. 먼저 일상다반사 기자들에게 일탈에 관해 각자 친구들에게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결국 아무도 안 해줘서 마감이 밀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특집 팀 이성민 기자!, '어…. 해볼게!'를 회의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특집 팀 조예나 기자!, 초반 갈피를 못 잡은 탓에 중간에 조금 골머리를 앓고 부족한 시간 탓에 휘청거리고 나서 일상다반사의 신맛, 짠맛, 쓴맛 다 봤다고 말하는 윤수민, 조연지 기자!, 난생 첫 화제의 인물을 맡아서 최문형 기자와 열심히 화보를 찍어준 최현서 사진기자!, 초반 화보를 빠르게 다 찍어서 마감을 지키지 않을까 했지만 5학년의 빡센 일정으로 정신줄 놓고 두 손 두 발 다 든 사진기자 짱 최문형 사진기자!

마지막으로 모범형 기자들입니다. 모범형은 그나마 자신이 할 일을 모두 신속하게 수행한 칭찬 받을만한 기자들입니다. 먼저 스케줄러를 맡아 누구도 지켜주지 못한 본래 마감일에 감초 같은 스케줄러를 보내준, 제일 칭찬하고 싶은 이담 삽화 기자(2학년)!, 특집에서 일반학교 교사이자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을 인터뷰했으며 글 기자 중 제일 먼저 기사를 보내준 김서준 기자(2학년), 반가워요 후원인을 맡아 바쁜 제주도 주제 여행 중에 후조, 경수 쌤을 인터뷰하여 5년 짬밥의 위력을 보여준 최유경 기자!(5학년)까지 이들 모두가 일상다반사의 모범이 되어준 모범형 기자들입니다.

시작부터 위태위태했던 가을 호가 끝나갑니다. 제가 편집장으로 된 이후로 낸 첫 간디IN이 되겠군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간디IN' 많은 분이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다반사 기자들도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호에서는 모두 모범형으로 만나길 빌어보며 2018년 가을 호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호 특집

학교



로망은 현실이 아니다!!

조예나 기자(1학년)

여러분은 학창시절 학교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나요? 대안학교 학생과 일반 학교 학생이 서로의 학교에 가지고 있는 로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공부, 교복, 연애 총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보러 가실까요?

일시: 2018년 9월 29일 6시~
중등 참여자: 윤다현(분당 서현중,14), 서정우(경기 광주광남중,14),
조재영(제천 간디,14), 노현지(제천간디,14)
고등 참여자: 정민서(인천 부광고,18), 이재형(제천간디,18)

공부

중등

재영: 공부 많이 어려워?

다현: 많이 어렵긴 한데, 6학년 때랑 비슷해.

현지: 수학에 단원? 같은 거 있지 않아?

정우: 단원? 있지. 너희는 무슨 수업해?

재영: 우리는 수업이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듣고 싶은 수업만 골라서 직접 시간표를 짜

다현: 그럼 국어, 사회 같은 거는 안 하는 거야?

현지: 수업은 없고, 듣고 싶은 사람은 개인 프로젝트로 들어.

정우: 개인 프로젝트가 뭔데?

재영: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개설된 수업이 없을 때, 개인 프로젝트 계획서를 써서 내면 담당 선생님이랑 정해진 기간 동안 수업을 하는 거야

다현: 그런 것도 있어? 좋겠다.

고등

재형: 학교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

민서: 애들 보면 학교에서는 잘 안 해. 근데 공부하는 애들은 집에 가서 하나 봐. 진짜 거짓말이라고 할 만큼 학교에서는 안 해. 근데 시험 기간에는 애들이 학교에서도 공부해.

재형: 애들이 학원에서 공부를 많이 해? 학교에서 공

부를 많이 해?

민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학원에 다녀서 야자를 안 해, 나는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학원에서도 열심히 하는 편이야.

재형: 지금 하는 공부가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민서: 솔직히 말하면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 우리 엄마, 아빠도 다 배운 건데, 쓰는 걸 거의 못 봤어. 미분 적분을 일상에서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그쪽 전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 과목을 다 배워야 하는 게 비효율적이야.

재형: 그럼 도움이 되는 공부는 뭐가 있어?

민서: 체육. 그리고 세계 지리? 모르던 걸 많이 배워. 그리고 문학. 시를 해석하고 이런 게 재미있더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아. 너는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배우니?

재형: 이번에는 수업을 안 듣고, 우리가 직접 제주도 여행을 짜서 돈도 직접 벌어서 갔어. 그리고 학교에 가을축제라고 큰 축제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축제를 맡아서 그걸 하고 있어.

민서: 대박인데?

재형: 나는 가끔 우리학교 살다 보면 수학이나 영어를 거의 안하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민서: 어느 정도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맞다고는 안 했어.

재형: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 공부하는 이유가 커서 써먹기보다는 대학가기 위해서가 커?

민서: 크지. 대학이 99%? 공부하는 이유가 대학가기 위해서이니까.

재형: 그럼 대학 안가도 되면 지금처럼 공부 안 할 거야?

민서: 하고 싶으면 할 것 같은데 안하지 않을까? 근데 너희 학교하고 우리 학교는 좀 많이 다르다.

재형: 많이 다르지. 너는 우리 학교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잖아.

민서: 거의 없지. 근데 대안학교라는 건 알고 있어. 나도 대안학교가려고 했거든.

재형: 마지막으로 물어볼 건 학교에서 더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과목이 있어?

민서: 체육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

재형: 체육시간에는 뭘 하는데?

민서: 배드민턴, 탁구, 축구, 농구 하는데 좋아.

재형: 나한테 공부에 관해서 물어볼 거 없어?

민서: 대안학교 사람들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재형: 우리학교 사람들은 배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수업도 잠을 자는 수업들이 있어. 철학이나 역사 같은 수업은 졸리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잠을 자.

민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배우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수업 듣는 걸 싫어하네. 혼자 읽고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였어. 그래서 나는 수업이 안 들렸던 거였어.

재형: 우리학교는 수업 말고도 배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어서 딱히 수업에서만 모든 걸 배우는 건 아니야.

교복

중등

현지: 교복 안 질려?

다현: 완전 질리지.

현지: 교복 입고 싶다, 교복을 빌릴 수 있으면 좋겠어.

정우: 우리 학교 교복이 진짜 이상해.

현지: 좋겠다. 나도 이상한 교복 입고 싶다.

현지: 교복치마 안 줄였어?

재영: 교복치마를 왜 줄여? 줄이면 촙잖아.

다현: 줄이면 안 돼. 줄이면 선배들이 눈치주고 뭐라고 해.

현지: 체육복도 있어?

재영: 야 드라마를 봐라. 다 나오잖아.

현지: 우린 안 입어

다현: 좋겠다.

현지: 교복 안 좋아?

다현: 안 좋아. 불편해.

정우: 불편해. 갈아입을 곳이 없어.

재영: 그럼 학교 다닐 때 계속 교복 입고 있어야해?

정우: 응. 평소엔 교복입고 다녀야 하는데 겨울에 추워.

재영: 체육복 따뜻하지 않아?

정우: 맞아 따뜻해.

현지: 그냥 체육시간에 체육복 안 입으면 안 돼?

정우: 안 돼. 그럼 체육 못해.

고등

재형: 오케 다음은 교복에 대해 얘기해보자. 너희는 교복이 있고 우리는 교복이 없는데

민서: 교복이 가격이 진짜 비싸. 쓸데없이 비싸.

재형: 얼마 정도 하는데?

민서: 25만원 쯤 하지 않을까? 근데 하복이랑 체육복은 따로 사는데, 하복이 20만원이고 체육복이 총 6만원이야. 근데 작아지면 또 사야해.

재형: 교복을 입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 거 같아?

민서: 제어하기 쉽게 하려고? 관리하기 쉽지 않을까? '저기 우리 학교 학생이네' 하면서. 근데 그 효과도 크지 않을 거야. 너희 학교는 어때?

재형: 우리는 교복 안 입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민서: 자연스럽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재형: 나도 태어나서 한 번도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

민서: 우리학교 애들이 교복 입는 걸 진짜 싫어해서 안 입어.

재형: 우리는 다 사복을 입고 다니니까 멋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민서: 고등학교 정도면 다 멋 부릴 시기지. 요즘 애들 옷 입는 거 보면 눈이 부시더라고.

선배

중등

다현: 위계 있어?

정우: 없어

재영: 근데 6학년 형들이 좀 무서워.

다현: 몇몇 언니들이 우리들한테 꼽 줘.

재영: 꼽 주는 게 뭐야?

정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는 거야.

다현: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어떤 언니랑 양을 맺었는데

재영: 양이 뭐야?

다현: 양이 선배들하고 가족 같은 관계를 맺는 거야. 양(養)언니, 양(養)아버지처럼.

기자: 더 자세히 말하면 존댓말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친해지면 양을 맺고, 그럼 후배가 선배한테 조공을 하고, 선배가 양을 맺은 후배를 감싸줘. 그래서 후배가 시비에 털렸다. 그러면 선배가 또 꼽주러 가는 거야.

다현: 그래서 나 초등학교 때는 어떤 언니가 내 친구 한테 꼽 줘서 교무실에 불려간 적도 있었어.

고등

민서: 너희 학교는 선후배끼리 친해?

재형: 그치 대부분 가깝다고 볼 수 있지.

민서: 난 그게 부러워. 우리학교는 선후배끼리 별로 안 친해. 근데 동아리 하는 애들은 친하기도 한가 봐.

재형: 빽 없어? 막 빽 믿고 나댄다. 이런 거

민서: 없어. 중학교 때까지는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그렇게 찌질하지는 않더라고

재형: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은 해?

민서: 그런 생각 하는데 후배들이 어리잖아. 그래서 가끔 마음에 안들 때가 있어, 애들이 너무 까불어.. 너무 학교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재형: 우리학교는 많이 만나니까 우리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반이 섞여 있어서 선후배가 만날 일이 많아. 기숙사도 그렇고

민서: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까부는 것도 있지만 선배되면 까칠 해지는 거 그런 거 때문인 것 같아. 친구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눈에 겨워도 뭐라 하지는 않지.

연애

중등

현지: 일반 학교는 학년에 사람이 많으니까 짝꿍 끼리 썸 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학교는 사람이 적으니까 거의 대부분 호감이 생기기가 어렵더라고.. 그리고 교복 데이트도 로망이야!

정우: 우린 자리를 동성끼리 앉아서 짝꿍끼리 썸 타기가 더 어려워.

다현: 우린 남녀로 앉는데, 짝궁 끼리 썸 타는 건 못 봤어. 어차피 짝궁 아니라도 생길 사람은 다 생기더라고.

재영: 근데 1학년 때 연애 하는 거 아니라던데, 몇 년 간 얼굴을 계속 봐야 되잖아

현지: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엔 비밀연애를 해도 다 친해서 들켜.

정우: 연애 하는 걸 들키면 안 돼?

재영: 아니. 들켜도 상관은 없지만 비밀 연애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재영: 너희 친구들 중에 연애하는 애들 있어?

정우: 있지.

현지: 교복데이트 해?

다현: 근데 거의 다 교복 말고 생활복 입어.

고등

재형: 다음은 연애.

민서: 나는 하고 싶지.

재형: 못하는 이유가 있어?

민서: 남고야. 그래서 지금 남녀공학 안 간 걸 후회하고 있어. 여학생을 볼 일이 없어. 다른 애들은 보는 거 같은데 안 부러워.

재형: 부러운 거 같은데?

민서: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만나는 거 안 좋아해. 나는 좋아하는 애가 있어.

재형: 있어? 못 만난다며.

민서: 못 만나. 근데 얼굴이랑 이름은 알아. 그리고 우리 반에 연애하는 애가 한 명 있긴 한데 개 말고는 없어.

재형: 남고는 없구나. 남고라고 해도 바깥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서: 그런 애들도 있을 걸?

재형: 우리 학교는 연애 많이 해.

민서: 부럽다.

재형: 붙어 있으니깐

민서: 근데 선생님들은 걱정은 안하셔? 기숙사잖아.

재형: 걱정 할 수 있지. 근데 지금까지는 연애 하면 잘 해라. 하는 것 같아. 근데 같은 학교니까 헤어지면 힘든 것 같아. 같은 반이나 동아리면 매일 얼굴 봐야 하니까.

민서: 근데 우리 일반계 공학에서도 같은 반 애들이랑 사귀잖아. 근데 너희는 학생이 더 적으면 얘기할 일이 더 많을 거 아냐. 그럼 풀어야겠네? 근데 그게 힘들 것 같아. 근데 둘 다 싫증이 나서 자연스럽게 헤어지면 친구 되는 거 아냐?

재형: 학교에 가면 동성애자 커플은 없어?

민서: 없어.

재형: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민서: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놀리는 애들이 있으면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건 있을 거 같아. 만약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재형: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민서: 없어. 우리 반에도 있을지도 몰라.

재형: 우리 학교는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민서: 와 진짜 대단하다. 그 사람 어때?

재형: 똑같아. 그냥 사람이야. 다를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잘 보셨나요? 처음엔 어색해서 만담이 잘 진행될지 걱정했는데, 편안하게 이야기 해줘서 저도 기사 쓰기가 수월 했던 것 같아요. 만담에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딸(아들)은 어디 학교 다녀요?

김서준 기자(2학년)

이번 기사는 '대안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인터뷰에는 권승호 님(11효연, 15태윤빠), 김미선 님(16주현맘), 김현중 님(12정택, 14승택맘), 한길자님(14한결, 18한준맘)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네 분 모두 일반학교 국어교사이신 동시에 비인가 대안학교 학부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인터뷰 보실까요?

Q. 일반학교 교사이면서 비인가 대안학교를 선택하신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현중 님: 일반학교는 아이 개개인을 보지 않고, 정해진 틀에 아이를 맞추려 하는 것이 싫었고,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를 점수로만 보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아이를 점수로만 보지 않을 자신이 있었지만, 막상 6년을 그런 시스템 안에 있으면 점수로부터 자유로울 자신이 없었어요.

Q. 자식을 비인가 대안학교에 보낸 후 불안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어떤 점이 불안하셨나요?

권승호 님: 비인가 대안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불안하기보단 자식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학교를 보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큰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는 또래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있긴 했지만,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턴십[1]으로 다녀왔던 회사에서 1년 남짓 다니다가 그만 두었을 때,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뒷받침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Q. 불안하셨다면 그 불안함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권승호 님: 아이의 문제와 내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이의 삶에 대해 가장 큰 고민을 하는 것은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고민이 가장 클 것이기 때문에 저까지 덩달아 고민한다면 아이가 더 불안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삶은 무척이나 길 것이고, 그 긴

1 6학년 1학기에 학교 밖으로 나가 약 3달 동안 사회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오는 활동.

한길자 님(14한결, 18한준 맘)

김미선 님(16주현 맘)

권승호 님(11효연, 15태윤 빠)

김현중 님(12정택, 14승택 맘)

삶의 여정에서 본다면 젊은 시절의 2~3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차례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의 고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이와의 솔직한 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길자 님: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일종의 트랙인데 일반학교의 목표는 대학진학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그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입제도가 바뀌면 교육과정도 그에 따라 변화해요. 반면, 대안학교는 각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목표에 따라 학교마다 특색이 있는데요,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점은 아이들 각각의 특성과 성장 속도를 고려한다는 것이에요.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사람을 배출하고 싶어 하고, 일반학교는 대학에 맞는 인재 상에 교육과정을 맞추려고 해요. 결국 학교는 기업에 적응적인 학생들을 키워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획일화되어 있어요. 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Q. 대안학교 학생들과 일반학교 학생들 사이에 크게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길자 님: 대안학교 학생들은 자기표현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학교가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럿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일반학교 학생들은 경쟁이 주다 보니 토론하거나 협력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교사가 결정해주길 원하기도 해요.

Q. 대안학교 학생들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일반학교 학생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권승호 님: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적인 지식으로만 한정해 놓고 본다면 평균적으로 일반학교 학생들이 좀 더 우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식을 단순한 교과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고 자립적인 생활의 기초를 배우는 걸로 확장한다면 '간디학교 학생들이 좀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Q.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학생들의 사고방식 차이는 큰

가요?

한길자 님: 제가 만난 일반학교 학생들은 매우 도덕적이에요. 자기 체험과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주입된 생각들을 그대로 수용해요. 왜 그래야 하는지, 혹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 질문하지 않은 채 단지 그래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진짜 자기 욕구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떤 '당위적 사고'에 빠져 있어요. 대안학교 학생들은 꼭 묻죠. '왜 그래야 하는데?'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납득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다수가 그렇다 해도 '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혼잣말이든 크게 외치든.

Q. 일반학교 학생과 대안학교 학생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권승호 님: 학생들에게 또래와의 관계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

김현중 님: 영상세대여서 책을 잘 안 읽는 것.

한길자 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

Q.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인가(인정)를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미선 님: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안학교 역사와 관련지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학생들을 골고루 배려하지 않는 공교육에 대한 심각한 반발 및 획일적이고 경쟁중심의 사회모습을 지양하기 위해 태동한 대안교육 1세대의 흔적이 바로 '비인가'라는 것을 고수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수준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니, 대안적 삶과 교육을 모색하는 학교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Q.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권승호 님: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사의 정치적 발언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권승호 님: 저는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과연 나의 고민과 선택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은 생각인지를 생각해보곤 합니다. 학생들 또한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진짜 자신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미선 님: 학생들이 저마다의 가치로 존중받고 저마다의 잠재력을 꽃피우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중 님: 학생들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사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한길자 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더불어 살 줄 알았으면 해요. 요즘 아이들은 외로우면서도 이기적이어서 더불어 사는 기쁨을 잘 몰라요.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친구들과 나누며 함께 사는 즐거움을 배우길

바라요.

Q. 교사의 관점으로 볼 때 비인가 대안학교에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권승호 님: 간디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생활의 '자립'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과목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생활의 자립이야 말로 모든 인간이 이루어야 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자립을 든든한 밑바탕으로 삼아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마음껏 발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미선 님: 사실 우리나라는 교육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 일반학교는 엄청난 교육예산의 집행에 따라 교육환경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과정, 특색 프로그램 운영'이 진행되고 있지요. 이제는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인문학적인 소양과 예술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기른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등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Q. 학교란 어떠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미선 님: 학교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공간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만의 관점이나 이해가 아니라, 공동체의 관점과 이해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경험을 나눌 수 있어야 '학교'라고 봅니다. 결국 학교는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의 가치와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고 익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한길자님: 학교는 성인이 되기 전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무엇이든 다 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해요. 그러려면 어른들이 학생들을 믿고 그런 공간을 열어줘야겠지요. '자유란,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다.'라는 문장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를 누려보고 물과 싸우면서 배워가는, 그리고 어른들이 그것을 지켜봐주고 지지해 주는 곳이 학교였으면 좋겠어요.

필자도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라는 일반학교와는 다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학교를 재학 중이면서도 정작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우리 학교가 제시하는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기사를 쓰면서 '학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은 깨닫게 되고, 학교가 제시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디어디? 뭐가뭐가?

이성민 기자(3학년)

가끔씩 친구들끼리 학교에서 가장 맛있는 식단이나 가장 재밌는 축제가 뭔지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다 다른 대안학교는 어떤 식단이 맛있고 어떤 축제들이 있을까? 뭐하고 뭐 먹고 살까? 궁금해져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어디에 뭐가뭐가 제일가는지 모아봤습니다~

잘 보고 각자 마음속의 1등을 정해 보세요. 내꺼야 내꺼야 넌 내꺼~

거침없는 우다다 학교의 〈핑거스〉

기타치는 동아리 핑거스~ 손님이 오실 때 마다 공연하는데
실력도 좋고 재미있고, 우다다에서 가장 오래된 동아리라고 해요!
공연을 직접 본 필자가 인정한 핑거스!! 너무너무 멋있어요♥

풀무학교의 〈한마당〉

풍물 동아리 한마당~ 정말 잘 나가서 올 해 신입생의 절반이
한마당에 들어갔다고 해요!
동아리 회원이 36명이면 이 열기와 인기, 인정할 수 있나요?

길학교의 〈공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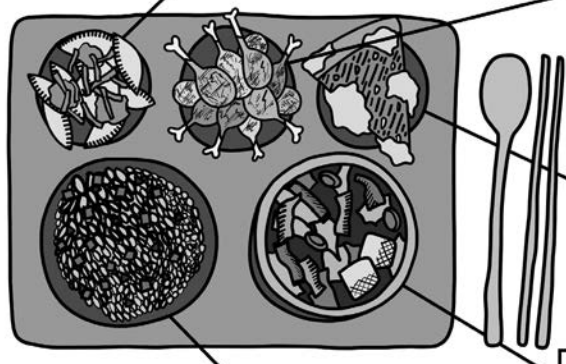
'공룡라떼를 드실까요?'의 줄임말로, 남여 춤 동아리라고 해요!
오래되었지만 아쉽게도 이번에 없어지고 말았답니다ㅠㅠ

제천간디학교의 〈비빔만두〉

그리워져 자꾸자꾸 찾게 된다는 마성의 비빔만두!
양배추와 만두와 매콤한 소스의 환상적인 비율로
누구든 매료 시켜버린다는 마성의 비빔만두!

길학교의 〈닭봉구이〉

후라이드, 양념 저리가라! 날게 짓 하듯 힘차게
한입 베어물면 입 안 가득 퍼지는 짭조름한 맛!
이 중독성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풀무학교의 〈흑미 고르곤 졸라 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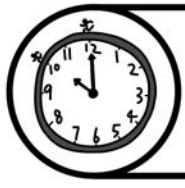
도우와 치즈 사이에 소스가 일품!
달콤하면서 달달한, 오직 풀무학교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안 느끼한 크림소스!
무슨 말이 필요하랴 진짜 좋다.

산마을 고등학교의 〈소보로 덮밥〉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모르는 사람은 다 모른다는
그 소보로 덮밥! 오해하면 안돼요~ 소보로 빵과
밥이 아니라구요~ 고슬고슬 따뜻한 밥에 폭신한
스크램블에그!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조합!!

거침없는 우다다 학교의 〈김치찌개〉

우다다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큰엄마쌤이 해주시는 시원하고 얼큰한
김치찌개의 맛은 결코 잊을 수 없다!



길학교는 〈월요일 10시 등교〉

다들 몇 시까지 등교하시나요?
월요일만큼은 10시까지 등교할 수 있는 길 학교!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줄 것 같네요. 부러워요 부러워!!

제천간디학교는 〈생태화장실〉

생태화장실... 말이 필요 없다. 한번 가면 영원히 잊을 수 없다는 그 짙은 향기...
똥이 그대로 보이고 물을 내리지 않는 재래식 화장실을
요즘 어디서 찾아 볼 수 있겠는가. 과연 제천간디의 명물이다.

거침없는 우다다 학교는 〈음악〉

우다다 학교 학생들은 악기를 정말 잘 다뤄요!
대부분이 기타를 칠 수 있고 악기를 대박 대박 잘 다루는 사람이 많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음악 관련 수업, 공연이 많습니다~

풀무학교는 〈화장실 신발〉

대부분 화장실에서 나갈 때 자기가 나가는 방향으로 신발을 벗어놓고 가잖아요.
풀무학교는 다음 사람이 신는 방향으로 벗어놓고 갑니다! 편하게 신을 수 있게
돌려 놓는거죠. 나갈 땐 돌아서 나가고 들어갈 땐 그냥 들어갈 수 있게끔!

거침없는 우다다 학교의 〈도보여행〉
우다다 학교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말 그대로 걷는 여행인데,
학교사람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고, 힘든 만큼 재미있고
흥 넘치고 파이팅 넘쳐요~ 그래서 학생들도 도보를 가장 좋아 한답니다.

산마을 고등학교의 〈문화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학교 학생들끼리 노는 행사입니다.
준비 위원회를 기획하고 공연도 하는, 클럽 같은 느낌의 축제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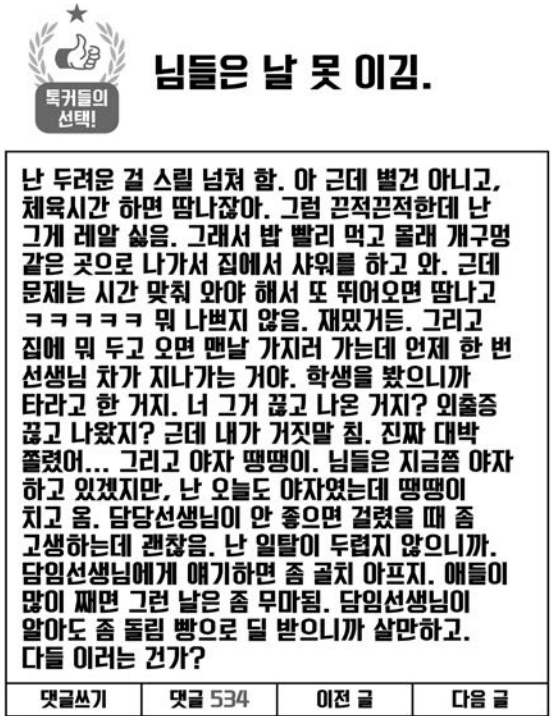
길 학교의 〈청춘의 길〉
부모님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재학생들이 기획하고 만들고 진행하는 온리
학생들만의 축제! 10월~11월 중에 여는 축제이고, 컨셉을 정해서
그 컨셉에 맞게 축제를 준비해요. 축제가 끝나고 나면 싸갈정도로
사탕과 과자가 많아요~ 보드게임과 포토존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도 있어 놀거리 볼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청춘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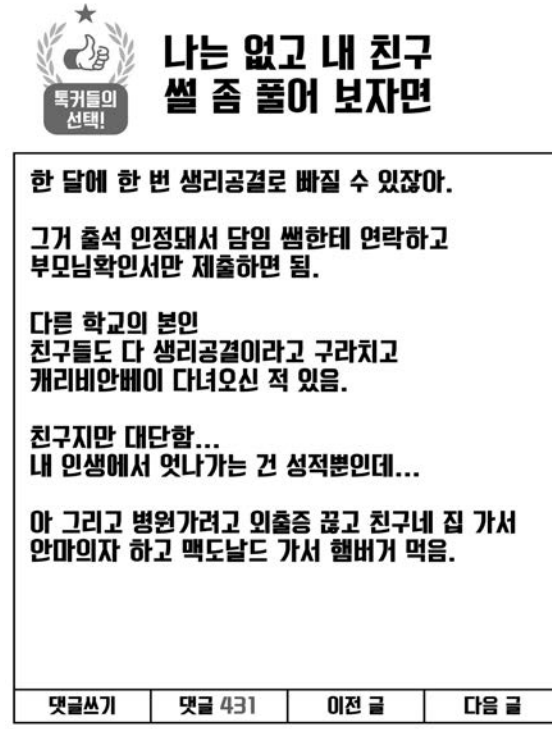
풀무학교의 〈풀무제〉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지만 풀무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매년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전교생이 함께 공부해요. 그걸 발표하고
전시하고 공연까지 하는 게 바로 풀무제입니다. 정말 뭘 해도 재밌어요!!

학교는 잠시 벗어던지고

이성민 기자(3학년)

학교와 집(혹은 기숙사)를 오고가는 반복적인 일상.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을 내일! 이대론 안 되겠어. 학교는 잠시 벗어던지고 일상을 탈출 하는 거야!!
대안학교, 일반학교 할 것 없이 용감한 자들의 일탈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톡커들의 선택!

님들 대단하시네요...

저는 제가 꿈꾸는 일탈 좀 풀어보겠습니다ㅠ
10월 8~12일까지 중간고사 보는데 시험 뒤
일주일은 현장체험학습 못쓰잖아요.
서술형 확인하느라고.

근데 14일(적당히 구름 껴서 햇빛이 안 뜨거운
날씨)에 학교 째고 예쁘게 차려입고 에버랜드 가서
친구들이랑 머리띠 맞춰서 놀이기구 진짜 많이 타고
츄러스먹고 핫도그 먹고 놀다가 불꽃놀이보고
폐장시간에 나오고 싶습니다ㅠㅠ

제 대신 일상 탈출 해주실 분 안계신가요...

댓글쓰기	댓글 376	이전 글	다음 글

톡커들의 선택!

진짜 쪽팔린 썰인데...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와서 아침시간에 밥 먹으러
나가려다가 쌤이 가지말래서 못 나감.

한 1,2교시 지나니까 레알 배가 고팠어.
3교시 때 토할 정도로 배가 고파서 쌤 말 안 듣고
앞도 뒤도 안보고 학교 밖으로 뛰쳐나감ㅋㅋㅋㅋ

근데
엄마를 만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뚜들겨 맞았어.
여기까진 진짜 양호한데

그걸 내 썸남이보고 웃고 그냥 감.

댓글쓰기	댓글 298	이전 글	다음 글

톡커들의 선택!

인생 최고의 일탈

내 최고의 일탈 썰 좀 풀어볼게...
학교에 기숙사가 있어서 저녁모임 끝나고 묵학하러
생활관에 올라가야하는데, 내려간 적이 있음...

한번은 친구랑 진짜 조용히 슬금슬금 갔는데 너무
깜깜하고 무서운 거임. 올라가자마자 도망치고,
뛰면 귀신 따라붙는다고 해서 레알 빨리 걸어옴.

지금 생각해 보면 학교에 1초도 안 있었다ㅋㅋㅋㅋ
한번은 운동장에 뭘 놓고와서 가지러 간 거라서
일탈이 아니긴 함. 물건을 가지러 어쩔 수 없이
간 거였음. 가서 강강술래하고 옴ㅋㅋㅋㅋㅋㅋ

암튼 내 최고의 일탈이었음. 들킬 까봐 너무
무서웠는데 다들 대단한 듯.

내 일탈 은 별거 아니네...

댓글쓰기	댓글 234	이전 글	다음 글

학교(學校)...그것이 알고 싶다.

윤수민, 조연지 기자(4학년)

여러분은 학교란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교마다, 사람마다 학교라는 곳의 대한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다른 삶, 다른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분들과 일반 학교, 대안학교를 둘 다 경험하며 길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다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남궁이랑님, 이성학님과 대안학교 자퇴 후, 일반 학교로 진학하신 윤태우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5년제 대안학교인 불이 학교를 자퇴하고 현재 송내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신 윤태우님의 이야기입니다!

♥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윤태우 님: 저는 초, 중, 고1까지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고2 때 일반 고등학교로 다시 입학하게 된 18살 윤태우입니다!

♥ 전 학교를 나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태우 님: 어릴 적부터 대안 교육을 받아와서인지 중3 때 너무 작은 세상만 보고 자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생 때까지는 삶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고, 제가 주최가 되어 삶을 꾸려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재택교육, 혁신학교들도 있는데 일반학교로 전학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태우 님: 확실한 계획이나 주변에서 끌고 가주는 무언가가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고 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확실히 경험해보려면 대안학교와 정반대인 학교를 가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일반 학교를 선택했어요.

학교를 알아볼 땐 교육과정을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 새로 간 학교 분위기는 어떻게 적응했나요?

윤태우 님: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들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다녀 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대안학교와) 다르진 않아서 놀랐고 친구들도 금방 사귀게 되었어요. 대안학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온도 차가 좀 심해요. 학생들이 많아서 일일이 신경 써주시기 에는 무리가 있으시겠지만, 대안학교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기대한다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 현재 학교는 이전 학교에 바라던 점을 해결해주었나요? 교육과정은 어떤가요?

윤태우 님: 기본적인 수업(국, 영, 수 등등)을 더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어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결해준 것 같지만 대안학교와 정 반대라서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짧은 시간에 진도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몇몇 과목은 순식간에 진도를 나가서 대부분 학원에서 자세히 공부하기도 해요.

♥ 선후배 관계는 어떤가요?

윤태우 님: 대안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많지 않아서 모든 학생과 친분이 있었고 가까운 분위기였지만 일반학교에서는 확실히 같은 학년끼리도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아리나 부서 활동에서 후배들을 잘 챙겨주시는 선배들도 있어서 선후배 관계는 대안학교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 대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꼭 가야 할까요?

윤태우 님: 일반학교의 모든 교육 시스템과 행사들은 대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것을 전제로 학교에 다녀요. 대학에 가서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고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고민을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어떤 선택을 하던 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대학을 갈지 말지 선택하는 것이 조금은 가벼운 고민이 되었으면 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남들 다 미친 듯이 노력해서 가는 대학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 전에 정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민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일이 대학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 지금 학교에서 개선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윤태우 님: 너무 많은 것이 대학에 맞춰져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고,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너무 불편해요.

♥ 학교가 선택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윤태우 님: 다녔을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 학교에 다니는 것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신 윤태우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남궁이랑님의 이야기 입니다!

♥ 자기소개해 주세요.

남궁이랑 님: 안녕하세요. 남궁이랑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식순환협동조합[1] 대안대학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림, 사람, 술, 담배 등등…. 을 좋아합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좋아하는 걸 대부분 못 하고 있네요.

♥ 언제 자퇴[2]를 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궁이랑 님: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말에 학교를 나왔어요.

학교를 나올 때 스스로 물러났다고 하기에는 나오기도 너무 힘들었고 학교를 나온 선택 또한 온전한 나의 의지로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대학을 가고 싶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었어요. 학교 속에서 대학 입시를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해서 대학을 가야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입시 교육,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학교 구조, 냄새나는 화장실…. 여러 이유가 있었고 개인적인 일들도 많이 겹쳐서 조금이라도 빨리 학교에서 나오고 싶었어요.

♥ 대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꼭 가야 할까요?

남궁이랑 님: 음…. 누가 대답하든 어려운 질문이네요. 대학 진학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보다는 나에게 대학이 왜 필요한지, 가고 싶다면 왜 가고 싶은지 고민을 한번 해봐라." 라는 조언이 도움이 됐었어요.

♥ 학교 밖에서 얻은 배움이 있나요?

남궁이랑 님: 탈학교하고 나서 만난 사람들도 있고 원래 알던 사람들도 있는데, 학교 밖의 삶을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들과 만나고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게 저에겐 배움인 거 같아요.

♥ 탈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남궁이랑 님: 겁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자신을 겁주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을 믿지 않아도 된다고, 쫄 필요도 없고 잘못한 거 없으니 한없이 당당해도 된다고요. 나의 행보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공간

1) 안 가자니 불안하고, 막상 가면 참된 배움이 사라진 현재 대학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의 삶을 기획하고 타자와 공감하는 삶을 실천하는 2년제 대안대학 과정입니다.
2) '자퇴' 라는 단어는 '스스로 물러나다' 라는 뜻이 있는데, 그 단어보다는 학교를 탈출했다. '탈학교' 했다는 표현이 자퇴를 선택한 청소년들에게 더 적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을 찾아서 그 속에서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인생은 생각보다 쉽게 망하지 않으니까 망했다는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탈학교를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불안해하던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 학교가 선택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남궁이랑님: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내가 다닐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선택이 지지받고 어떤 선택을 하던 덜 불안하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장치들이 있었으면 해요. 그래야지 어떤 길이든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 학교란 어떤 공간이어야 할까요?

남궁이랑님: 학교에 있는 모두가 학교에 다니며 행복할 수 있게 애쓰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남궁이랑님의 학교 밖 청소년의 삶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삶을 사신 학교 밖 청소년 이성학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이성학 님: 안녕하세요. 저는 19세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싶은 28세 세학자 매니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일 하는 이성학입니다.

♥ 왜 19세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싶으세요?

이성학 님: 28세 청년은 너무 재미가 없는 느낌이라서? 저는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요. 청소년과 다른 입장으로 살아가기보단, 청소년처럼 살아가고 싶어서요. 남에게 이야기하는 사람 말고,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요, 언제까지나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 언제 탈학교를 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성학 님: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당시엔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서 밤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또, 정해진 것만 공부하라고 하는 것도 싫었고요. 일례로,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나 시험시간에 주는 자습시간에 책을 읽었더니 선생님이 책 읽지 말라고 했었어요. 저는 책을 읽는 게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직접적인 계기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자취를 했었는데 지각을 매일 했어요. 결석도 가끔 하고. 등교 거부라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었지만 혼자 살다 보니 생활 관리가 안 된 상태 로 일 년 반 넘게 다니니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 대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꼭 가야할까요?

이성학 님: 저는 대체로 대학에 진학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꼭 졸업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한 학기는 다녀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교양 지식, 프레젠테이션, 글쓰기, 협력-팀플레이 등)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전 과정에서 이런 걸 충분히 했다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세학자는 어떤 커뮤니티인가요?

이성학 님: 〈세상이 학교인 자퇴생〉이라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커뮤니티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16,000명 이상 회원이 가입돼 있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자퇴생 커뮤니티에요. 이 카페는 평범한 자퇴생이 오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특별히 '좋은/나쁜' 환경에 놓인 자퇴생들을 위한 공간은 많으니까요.

♥ 세학자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이성학 님: 페이지는 카페가 너무 폐쇄 적인 공간이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카페는 원래 활동하던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 매니저와에 트러블로 카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만든 카페에요. 저는 2010년에 청소년지도학과에 입학하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제가 느끼기엔 청소년 분야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는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은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온라인에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 인가요?

이성학 님: 학교 밖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2015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교육 지원, 자립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상담 지원 등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검정고시 반, 대학입시 지도, 문화체험, 상담, 학업중단 '숙려제', 인턴쉽 등등을 하죠. 저희 센터는 청소년이 집적이용 하는 기관이라기 보단 다른 기관들을 지원하는 것을 주로 하는 곳이라서 네트워크, 연합행사, 대학입시설명회, 청소년작업장 지원, 대안 학교 지원 등을 맡아서 해요. 학교 밖 청소년 자치 기구 인〈꿈 드림 청소년지원단〉도 운영하고요.

〈세상이 학교인 자퇴생〉

♥ 어떻게 해서 센터에서 일하시게 되었나요?

이성학 님: 제가 입학을 할 때에는 서울시에 서울시 대안교육지원센터 정도가 있었는데, 2015년부터 법이 시행되어 전국에 센터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일 하

고 있는 광주 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안교육지원센터가 2012년에 이름을 바꿨어요.) 다음으로 생긴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이어서 저희 센터와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정도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 학창시절 우리나라 학생에 기본 코스를 벗어난 자퇴라는 경험이 지금과 있는 일에 영향을 준 것 같나요?

이성학 님: 지금 하는 일엔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죠? 하지만 다른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 지금 자퇴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성학 님: 자퇴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아요. 힘들다면 피할 수도 있는데, 피하면 언젠간 다시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요. 자퇴한다고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10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자퇴했는지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 학교란 어떤 공간이어야 할까요?

이성학 님: 배우는 공간, 살아가는 공간, 노동(학생에겐 공부가 노동)하는 공간.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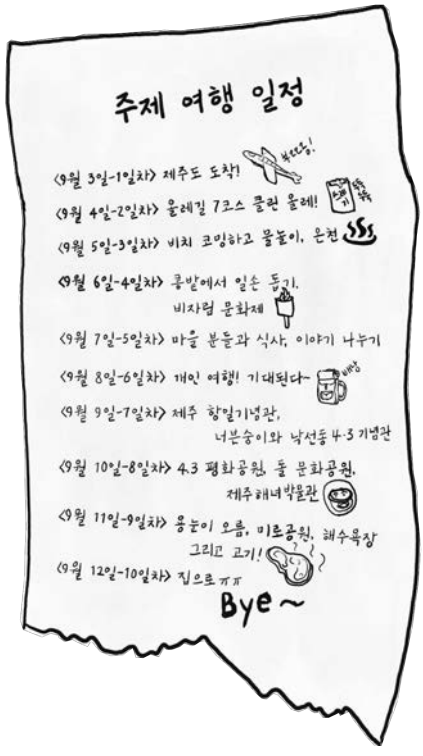
학교라는 공간이 아니어도 배움을 얻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고,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스스로 찾아간 청소년도 있습니다. '학교' 란 어떤 공간이어야 할까요?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를 재학 중인 청소년의 얘기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 삶의 길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은 모두 학교라고 칭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학교란 어떤 공간인가요?

우리가 봐야 할 제주도

이재형 기자(5학년)

지난 9월 초 간디학교에선 5학년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찾을 수 있던 건 이 쪽지 하나뿐이었어요. 도대체 다들 어디로 떠나버린 걸까요?



* 이 글을 쓰며 '5학년 주제여행 보고서'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이재형 기자 만의 생각이 아닌 5학년 학생들의 생각이 녹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8월 30일 목요일 저녁, 여기는 5학년 교실입니다. 저녁까지 우리 반 친구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 이유는 바로 망할 '주제 여행' 때문이에요. 아 다들 '주제 여행' 이 뭔지 모르죠? 올해 새롭게 생긴 5학년 과정인 주제 여행은 학생들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관해 탐구하는 여행을 계획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주제 여행은 주제, 여행지, 일정, 경비 마련 등 여행 준비의 많은 부분을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달 전부터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름다운 재단'과 공정 여행사 '트래블러스 맵'에서 진행한 공모 사업 〈길 위의 희망 찾기〉 였어요. 청소년들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이 공모 사업에 우리는 급히 짠 여행 계획을 10장이 넘는 신청서에 적어 보내고 프레젠테이션 발표까지 해 여행 경비를 지원받게 되었어요. 행운이었지만 지원금의 추진력은 우리를 앞으로의 고단한 나날들로 보내 버렸어요. 아주 순식간에 말입니다. 그 뒤로 쉴 틈 없이 여행 계획을 다듬고, 준비했어요. 아! 돈도 벌어야 했어요. 지원금으로는 한참 부족한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 세차도 하고 라면 장사도

했지요. 근데 그걸로 될 리가. 방학 땐 1인당 20만 원씩 벌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여행을 가야 하나 싶더라니까요. 20만 원이면 지금 왕창 놀 텐데 말이죠. 방학에도, 개학 후에도 여행 준비는 계속되었어요. 여행 나흘 전인 오늘까지도... 하지만 이제 주말만 지나면 우리는 떠나요. 바로 제주도로요! 힘들게 준비한 만큼 즐거울 거에요. 그리고 거기가 어디든 학교를 떠나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지금은 9월 4일 오후 3시, 우리는 지금 올레길 7코스에 있어요. 먼저, 어제 제주도 도착한 얘기부터 들려줄게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면 승훈이가 여권을 비행기에 두고 내린 거? 아 한울이도 핸드폰을 흘리고 와서 한바탕 했었죠. 둘 다 못 찾았다면 더 재미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하여튼, 어제까지는 제주도에 왔다는 게 실감이 안 났는데 지금은 실감이 나기보다는 싫증이 나요. 왜냐면, 오전 11시부터 지금까지 올레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있거든요. 최근 올레길에는 쓰레기들이 부쩍 많아졌대요. 관광객들이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들이 올레길 곳곳을 더럽히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직접 줍는 '클린 올레'를 하고 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걸으며 쓰레기를 줍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쓰레기봉투도 점점 무거워져 어디라도 철썩 앉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마냥 힘들기만 한 건 아닙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올레길을 걸으며 만나는 바다와 나무, 길, 바람 모두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근데, 좀 화가 나요. 다들 왜 그러나요? 자기 집 앞에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왜 여행을 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과자봉지, 음료수 컵을 휙휙 던지느냐고요. 깨끗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시키지 않아도 쓰레기를 줍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을런지. 쓰레기를 주우며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18살 청소년들이 깨끗한 제주를 위해 쓰레기 줍는 모습 보고 부끄러워서라도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주머니 속에 잘 넣어 가져가길 바라면서 말이죠. 아무래도 우리는 참 멋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황스러워요. 나무가 베어 나간 땅 위에 우리는 멍하니 서있어요. 아니, 많은 생각과 고민, 그리고 의문이 뒤섞이고 있어요. 덤프트럭의 경적 소리와 송당리 마을 사람들의 호통과 폭력을 지켜보며 너무나 화가 나고 그런 그들이 싫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이곳에서 희미한 노랫소리는 울분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곳은 비자림로, 잘려나가는 나무들을 지키기 위한 비자림 문화제 현장입니다. 지금 비자림에서는 2차선 도로가 좁다는 이유로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도로 옆 삼나무들을 왕창 잘라내어 숲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좀처럼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이렇게 문화제를 하는 것도 들어줄 때까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겠죠. 도로 좀 넓히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많은 나무들을 다 잘라낼 만큼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곳 송당리 마을 주민들은 폭력까지 써가며 파괴를 반대하는 사람

들의 입을 막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숲이 망가지는 걸 반대하지 않는 건가요? 다른 곳도 아니고 자신들의 마을이잖아요. 아니 그보다, 우리는 왜 반대하고 있나요? 나무가 잘려나가는 게 싫어서, 환경 파괴니까? 평소에는 종이와 일회용품을 가감 없이 쓰는 우리잖아요. 과연 우리가 송당리 마을 주민보다 더 간절할까요? 육지에서 바다를 건너온 우리가 "개발은 절대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물음과 이유 모를 화를 안고 우리는 계획보다 빨리 불이 꺼진 이 곳, 비자림로를 떠나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곳에 온 이유를 찾기 위해 더 오랜 시간 비자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지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9월 6일이 저무는 제주입니다.

9월 7일 오후입니다! 어후, 이제 좀 말할 여유가 생겼네요. 어제의 충격과 고민은 잠시 잊어야 할 만큼 오늘은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와글와글 분주한 부엌에서 보글보글 미역국을 한 솥 끓이는 동안 부엌 앞에선 지글지글 냄비에 기름 두르랴, 반죽 얇게 피고 때되면 뒤집으랴 바쁩니다. 국을 다 끓이고 나서는 채소를 썰고 양념을 해 오늘의 메인 요리 불고기를 만들어 완성된 잔치 밥상! 꼭 손님이라도 모실 것 같은 밥상에 정말로 손님들이 하나둘씩 오셔서 둘러앉으셨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틀 동안 지내고 있는 이 곳, 안덕면 대평리에 사시는 주민분들 입니다. 대평리 주민들을 뵙고 얘기도 나누고 싶어 준비한 식사 자리. 걱정이 많았지만 맛있게 드셔 주시니 "우리 그래도 잘해냈구나" 싶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마을 분들에게 대평리의 이야기도 들어 보았어요. 아직 작은 집들을 곳곳에 품고 있는 이 마을에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해요. 이젠 마을의 반을 이루고 있는 외지인들과, 함께 몰려온 피자집, 편의점, 카페, 관광객들은 마을을 전과는 다른 곳으로 만들었대요. 80년을 이 마을에서 사셨던 할머니가 예전에는 모두가 서로 도와주고 나누는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셨어요.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될 만큼이요. 근데 이젠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없어져 버린 걸 정말 아쉬워하셨어요. 20년 가까이 마을 슈퍼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고민이 많으세요. 마을 사람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터전이던 이 곳이 급히 개발이 되고 관광지가 되면서 주민들이 살아가기는 더욱 힘들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바뀌는 시대에 발맞추어 가야 한다는 주민분들의 말이 씁쓸해 계속 맴돌아요. 좀만 걸어가면 보이는 바다의 해녀도, 대문과 지붕 달린 작은 집들도 시대와 발을 맞추다 그만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슈퍼보다는 편의점이 편하고 좋은 나는 그저 변화를 아쉬워하며 마을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민분들의 말처럼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벌써 제주도에 온 지 8일째가 된 9월 10일, 오늘도 다저물어 이제 잠에 들 시간입니다. 아까 오후에는 해녀박물관에 갔었어요. 제주하면 해녀라지만 해녀의 삶과 문화를 알게 된 건 처음이에요. 가장 놀랐던 건 어린 해녀들을 위한 바다와 노인들을 위한 바다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냥 물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배려와 단합이 있더라고요. 함께이기 때문에 그 힘든 물질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꼭 우리 여행처럼 말이에요. "휘이잇" 깊은 물 속에서 물 위로 다시 나온 해녀들이 숨을 내뱉는 숨비소리를 들었을 때, 왠지 모를 안도감과 함께 가슴이 찡했어요. 그 소리는 무사히 물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바다, 즐겁게 뛰어든 바다가 실은 많은 이야기와 애환이 담긴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겠구나. 매일같이 바다에 뛰어드는 해녀들도 사람

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래서 여행이 필요한가 봐요.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들,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이날은 참 멋있는 분들을 만난 날이었어요. 바로 3년 전, 세월호 기억공간 리본을 찾아가 만나 뵈었던 황용운 선생님과 올해 지방선거 녹색당의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셨던 고은영 님! 무려 도지사 후보를 만나 뵙다니 감격입니다. 고은영님은 비자림로 문화제에도 계셨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불가피하게 끝나버려 비자림의 이야기를 모두 듣지 못한 우리에게 제주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건널 제(濟), 고을 주(州). 저 바다 건너 자리 잡은 제주는 아주 예전부터 함께 살아가는 곳이 아닌 이득을 생산하기 위한 땅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새로운 건물들이 끝없이 들어서고 자본과 사람들이 닥치는 데로 들어오는 제주는 점점 사람이 사는 섬이 아닌 관광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레길을 걸으며 마주친 쓰레기 문제, 안덕마을 분들께 들었던 삶 터가 사라지는 이야기, 비자림로에 가서 본 파괴와 분쟁. 모두 현재 제주의 상황 중 정말 일부일 뿐이라는 걸 고은영 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들이 곧 고은영님이 제주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이유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건너가는 곳이라 더 좋다고 많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건너가는 곳이라 다시 돌아오면 끝인가요. 저 건너의 아픔은 저 건너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아닌가요. 일본의 잦은 침략과 4.3 사건, 무자비한 개발과 환경 오염. 예부터 지금까지 혼자 끌어안고 있는 제주의 아픔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9월 12일, 제주도에 온지 딱 열흘이 된 오늘은 제주도를 떠나는 날입니다. 비행기가 뜨니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과 "제주도 참 좋았는데"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 시원하고 섭섭한 안녕을 하고 비행기가 하늘에 떴습니다. 아, 이제 나 말고 5학년 친구들이 말해줄 거에요. 이 여행이 어땠는지 말이죠. 지금부터는 모두 주제 여행 보고서에 16명 학생들이 쓴 글이에요. 정말 모두요.

제주에서 보낸 열흘의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지난 준비과정에 비하면 말이죠. 바쁜 학교생활에 여행 준비도 동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트래블러스 맵 여행 지원 사업'을 제안한 선생님들을 살짝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말 예쁜 곳이 많아요. 차로 지나가면서도 밖을 자주 보게 되더라구요. 제주도를 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알았고 앞으로는 제주도를 그저 휴양지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발전하는, 너무 발전해서 걷잡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제주를 보고 느끼며 더 많은 생각과 지혜와 추억을 남긴 거 같아요. 제주라는 곳을 깊이 생각해보니 이 사회도 다르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무수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고 느꼈던 경험들이 내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을까 봐 걱정돼요. 우선 여행 동안 느꼈던 감정들과 고민들을 하나하나씩 풀어헤치는 것만 해도 나에겐 재미있는 일입니다. 14학번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 아쉽기도 해요. 그건 아마 이번 여행이 너무너무 즐거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친구들의 관계도 여행 전보다는 돈독해 진 것 같아... 아니 내 착각인 것 같네요. 암튼 14학번 친구들과 함께여서 즐거웠어요! 이제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해요. 소중한 시간이었고, 재미있었습니다. 언젠가 제주도에 다시 오게 될까요? 그땐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할까요? 제주도는 다시 와도 좋고 다시 봐도 다른 곳이에요. 이쯤 돼서 말해 줄게요. 우리 주제 여행의 주제는 바로 제주의 '환경', '마을 살이', '역사' 이 세 가지였어요. 그리고 세 주제를 묶어 여행의 제목을 정한다면 '우리가 봐야 할 제주도' 일 것입니다.

제주에서 평생 살기

최유경 기자(5학년)

자타공인 힐링의 섬 제주! 올해 7월, 후조T와 경수T는 제천간디에서 10년 간의 교직 생활을 내려놓으시고 제주 구좌읍에 위치한 '노노레타' 라는 예쁜 이름의 펜션 주인장이 되셨습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넉넉한 웃음과 마음을 나눠주셨던 만큼,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제주로 떠나신지 두 달 차,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후조T: 선생님은 범린(02졸업생) 혜린(04졸업생) 학부모로 아이들을 제천간디에서 졸업시키고, 2009년도에 간디학교 교사로 음식작업장과 계절학교를 진행했어. 두 달 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제주로, 게다가 펜션 운영이라는 아주 생소한 직업을 갖게 된 박후조입니다.

경수T: 후조쌤보다 2년 먼저 학교에서 시설 맡아서 하고 목공, 적정기술, 생활기술 작업장도 맡아 하기도 했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후조쌤과 의견을 모아서 제주에서 다른 방향으로 살기로 했어요. 후조쌤이 또 이야기하겠지만 원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용기를 내 제주도에 오게 된 김경수입니다.

어떻게 제주로 오시게 되셨어요?

후조T: 결혼 30주년에 제주도 여행을 왔다가, 렌트카를 빌리려고 렌트카 협동조합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연이 닿았어. 렌트카 협동조합 이사장님이 노노레타도 운영하고 계셨는데, 펜션 자체가 남자 혼자 운영하기 참 어려워. 그래서 우리 숙소를 오셔서 운영해보지 않겠느냐 제의를 하셨고 우리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다시 학교에 왔는데, 일주일만에 전화가 오셔서 7월부

터 하셔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야. 제주도로 가겠다는 생각도 1도 없었고, 특히나 펜션을 하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더더욱 없어서 정말 당황스러웠지. 그래도 일반 학교 교사로 일하면서도 제천간디에 올 거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지만, 제천간디 가서 10년 동안 일을 했잖아. 그래서 제주도도 갑자기 결정을 하게 됐지. 물론 교사로서 정년퇴직을 하면 좋고 후배 교사들에게도 본이 되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어.

펜션을 운영하는 건 어떤 일인가요? 주변에 펜션은 많지만, 직업으로는 참 생소한 일인 것 같아요.

후조T: 나도 펜션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행을 와서 잠을 자고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었어. 우리가 사실 그랬으니까.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길 와서 펜션을 시작하니까 여기도 학교에서 생활했듯이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들의 삶을 나누는 하나의 장이더라고. 아직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야깃거리가 많았어. 모르는 사람으로 만났는데 이야기 하다 보니 제천간디 학생들 개인 무빙[1] 다녀온 곳의 활동가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의 관계다. 그 관계 속에서 인연을 맺어가는 곳이구나 생각이 들었어. 사실 그런 인연과 만남들은 학교와 별 다를 게 없어. 우리가 대규모로 외부에 나가면 빨래 한 번 하기에도 눈치 보이잖아. 나는 그런 사정을 아는 사람이니까, 학생들이 오면 이모 집 왔다 치고 그런 것 챙기고..

경수T: (수도 고치러 가심)

아직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세요?

후조T: 많아요. 대학생들이 우리가 제주도 내려온 지 이틀만에 첫 손님으로 왔는데, 밤 12시에 문을 두드리고, 나가보니까 케익 큰 걸 사와서 사장님 대박 나세요,

1) 매년 6월, 5학년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 배움을 얻는 본교의 교육 과정

하면서 주고 가더라고. 그리고 이 옆 방에 이모하고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이종사촌 간에 와가지고 2주를 있었어. 날씨가 정말 엄청 더웠을 때인데 경수쌤이 물놀이도 해 주고, 마지막 가는 날에 아이들 안아주니 울더라고. 또 인천 고등학교 선생님 네 분이 한라산 가신다고 오셨는데, 조식을 부탁하셔서 조식이랑 커피를 내려드리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대박 나시라고 또 오겠다고 하시고, 알고 보니 그 선생님들 중 내 조카 선생님도 계셔서 그렇게 또 연결이 되고. 쉰아홉 되시는 여자 친구 두 분도 11일 간 묵으셨는데, 그 분들은 올레길만 걸으시는 분들이었어. 근데 나랑 또래니까 형님 동생 하자고 하면서 얘기도 정말 많이 하고. 편지도 써주시고, 태풍 때 안부도 물어주시고. 그래서 또 사람들 만나기에 이 펜션이라는 곳이 참 괜찮구나 생각했지.

펜션을 운영하시지만, 그 전에 제주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여행이 아닌 제주살이는 어떠세요?

후조T: 여행으로는 10년 동안 엄청 왔지, 무빙과 계절학교를 병행하면서. 이제는 내가 살던 동네 같은 느낌이지. 사실 이 펜션 안에서는 별 다른 걸 못 느끼겠어. 그냥 내가 살던 제천처럼 편안한 느낌. 지역적으로는 유명한 구좌 당근밭이 있고, 세화부터 해서 함덕 해수욕장, 오름들.. 하늘이 참 맑으니까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 같아. 난 여기 와서 비자림에 꽂혔어. 저번에 경수쌤 친구가 와서 같이 비자림을 갔는데 나무가 베어지고 있으니까, 제주가 난개발이 많이 되고 소중한 것을 자꾸 잃어가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우리가 평화의 섬 제주라고 하잖아, 그런데 강정부터 시작해서 제 2 공항 군사용 활주로까지 그게 자꾸 깨어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

학교가 그리울 땐 없으세요?

후조T: 왜 없어, 늘 그립지. 특히 내가 10년을 맡아서 하던 계절학교 하는 시기에. 계절학교로 인해 얻는 에너지가 되게 컸거든, 너희들도 정말 일찍부터 만나고. 제주에 내려오자마자 여름 계절학교가 시작되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자꾸 제천에 가 있는거야. 그래서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혼자 아름쌤한테 다 떠맡기고 온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김장철 되면 어떡할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 개학 했을 때는 똥강아지들아, 잘 지냈니 하며 식당 들어갔던 기억도 많이 나고. 경수 쌤과 간디에서 10년 동안 배우고 성장했던 것을 여기에 녹아내리자 하며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우리한테 학교는 참 소중하고 고마운 공간이야.

교사 생활 하실 때와 생활면에서 달라지셨나요?

후조T: 완전 달라졌지. 학교에서는 큰 노동은 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내가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잖아. 손님이 나가면 되면 베개도 빼야하고 수건도 빨아야 하고.. 화장실 청소부터 방 청소, 침대 시트 갈고. 주부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여기서는 업으로 하는 거지. 다만 나이가 좀 있다보니 부대낄 때가 있기도 하고, 성수기인 7,8월에는 날씨도 덥고 정말 힘들었어.

노노레타의 반려견 노노와 레타 이야기를 해주세요!

후조T: 딸 혜림이가 중국 유학 가기 전 3주를 여기서 생활을 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유기견을 한 마리 키우자, 하는 거야. 그렇게 인터넷으로 찾다가 노노와 레타를 위탁하시던 분과 닿게 된 거지. 노노랑 레타는 그 분 집 앞에 그물망에 싸여 버려져 있던 애들이었는데, 그 분들이 애들을 위탁하면서 치료도 하고 키우다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거야. 나는 옛날 생각이 나서 똘이라고

하자고 했는데, 혜림이가 두 마리를 데려와서 노노와 레타 어때, 하길래 너무 좋다고 했지. 그렇게 데려와서 사나흘 지났는데 노노가 조금 이상하더라고. 혀도 약하고, 움직임도 약하고. 그래서 병원 가보니까 진드기가 너무 심해서 수혈까지 했어. 그렇게 치료하고 지금은 가족이 되어서 같이 잘 살고 있지. 사실 처음엔 내가 동물 키우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개를 두 번 키우고 나면서 되게 예쁘더라고. 노노랑 레타도 처음엔 밖에 내놓기가 너무 힘들어서 방에서 같이 잤어. 어디 나갔다오면 정말 반겨주고, 세상에 어떤 자식이 날 이렇게 반겨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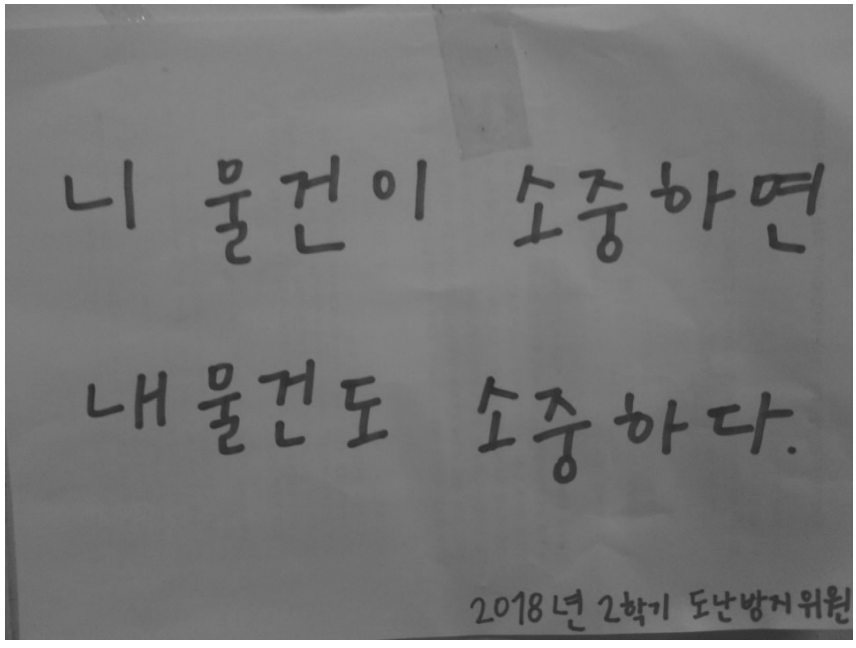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후조T: 어쨌든 경수쌤 60세에 터닝포인트를 가졌고, 나도 곧 있으면 60을 바라보는 나이고. 주변에서는 어떻게 제주도를 가냐, 용기 있다 하시는데 간디학교가 아니었으면 나도 제주도는 생각도 못했을 거야. 그래서 오기는 했지만 펜션이라는 사업 자체가 경기를 많이 타기도 하고, 우리가 홍보해야 할 sns나 인터넷 예약 체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려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제주에 왔으니 주어진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이 곳에 오시는 분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며 정말 편안하게 힐링하고 쉬어가실 수 있게 하고 싶어. 우리의 사는 모습과 함께 그 분들의 삶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고. 오셨던 분들은 참 좋았다, 다시 오고싶다, 이런 생각 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인터뷰 하는 내내, 학교 학생들과 펜션 손님들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펜션 노노레타는 제주 제주시 구좌읍 충렬로 141-1에 위치해 있습니다. 푸르른 제주에서 두 분의 단란한 삶도 한번 더 만개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도난당한 것

이한결 기자(5학년)



2018년 1학기.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손님이 있다. 누군가의 잠을 빼앗거나, 누군가가 공동체를 의심하게 만들거나, 누군가에게 소중한 물건을 빼앗아 가는 손님. 바로 도난사건이다. 매년마다 빠지지 않고 크고 작은 도난사건들이 일어난다. 큰 액수의 현금부터 배급된 간식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고, 도난당했다.

제천간디학교는 도난 사건이 일어날 시의 구체적인 메뉴얼이나 규칙이 정해져있지 않다. 교사회나 학생회, 또는 기숙사 동장까지 다양한 단위가 해결에 함께 한다. 학생회에는 도방위(도난사건방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과 담당교사가 도난사건 예방에 힘쓰고 있다. 허나 도난사건이 발생할 시 도난사건 해결 담당을 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난사건방지'에 초점이 맞춰 있지는 않다.

보편적으로 도난사건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스탑회의를[1] 열어 해결을 논의한다. 훔친 사람이 쉽게 밝혀지

1) 모든 일정을 '스탑', 중단시키고 진행한다는 전체 회의. 주로 심각하고 긴박한 사안을 다룰 때 열린다.

지 않는 도난회의는 새벽을 넘어가거나 해야 할 일정들을 포기해가며 회의를 할 때가 다반사이다. 도난회의의 가장 큰 목표는 훔쳐간 물건을 돌려받고 이를 사과 받는 것. '익명고백' 이란 방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과 회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게 보편적인 방식이다. 이를 위해 쪽지를 통한 익명고백을 받거나, 고백을 독려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돌아가며 발언하는 등 고백을 받기 위한 갖은 노력을 한다.

2018년 4월. 한 학생의 현금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올해의 첫 도난사건으로 접수가 되었고,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그 후로부터 5월. 일주일 동안 무려 10명의 현금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학교는 큰 충격에 빠졌다.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도난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학교는 일정을 중단한 뒤 도난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11건의 도난사건 중 6건의 현금도난이 익명의 사과와 현금으로 해결됐다. 도난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해결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간디인들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존재했다. 그렇게 도난이란 손님이 떠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다시 찾아온다면 우리는 또 다시 같은 갈등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일어날 도난을 마주할 우리를 위해, 글을 남긴다.

도난은 왜 일어날까?

도난은 왜 일어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도 모른다. 학교에서 일어난 숱한 도난 중 많은 도난은 원인을 알지 못하며 훔쳐간 학생이 익명쪽지에나마 희미하게 이유를 적어놓는 경우도 있다. 가족회의나 공적인 자리에서 도난에 대한 원인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도벽' 이다. 청소년기의 도벽은 드물지 않은 일이며 특히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생기는 증상이라는 게 통설이다. 도벽 자체도 여러 이유로 증상이 나타나며 도벽 이외에도 수많은 이유로 도난사건이 발생한다. 10년째 기숙사 사감을 맡고 계신 미리강 쌤은 "도난에는 매우 다양한 이유가 있다. 질투심에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칠 때의 쾌감으로 스트레스를 잊으려 하는 등 관계 • 정신적 문제로 도난을 저지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장난 또는 잠시 물건을 쓸려했다가 일이 커져 도난사건으로 흘러가버린 케이스도 있다" 고 답했다. 이어서 "도난을 저지른 친구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도난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어쩌면 자연스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심지어 저지른 친구도 후회하고 고통 받는게 도난" 이라고 덧붙이셨다. 도난은 사회 밖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이곳 말고도 다른 공동체 집단에서도 역시 도난이 일어난다. 다만 집단이 가지고 있는 시설적 구조와 공동체적 구조에 따라 도난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곳 제천간디학교라는 공동체는 과연 도난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을까.

가족에게 맡길 수 있는 것

백화점에서 도난이 일어났다면. CCTV를 통해 단서를 추적하여 범인을 찾아내는 게 일반적인 해결방식이다. 또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백화점 역시 물품보관함이나 보안요원 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지를 차단시킨다. 그렇다면 가정집에서 도난이 일어난 경우는 어떠할까. 서로를 의심하겠지만 이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는다. 사생활이 일부분 공유되는 가족은 자신의 지갑을 별 의심없이 가족 구성원들 앞에 두고 다

니며 심지어는 물건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다닌다.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다. 그만큼 편하니까. 도난이 없을거라는 확신 속에서 그렇게 자유를 얻고, 긴장의 끈을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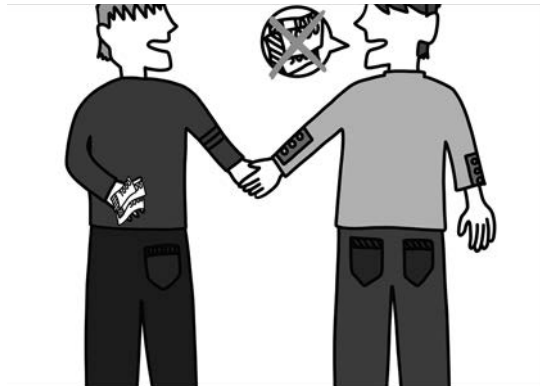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곳 제천간디학교는 어떤 곳일까. 수많은 학생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곳은 어쩔 수 없이, 또는 서로의 자유를 위해 일부분의 사생활과 물품이 공유된다. 자신의 소지품을 학교 어딘가에 놓고 다녀도 괜찮은 곳이고 서로에게 물건을 맡길 수 있는 공동체이다. 잠시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중요한 물품을 흘렸다 해도 크게 도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학교를 꿈꾸는 우리. 하지만 그런 믿음을 깨트리는 도난사건은 꾸준히 등장했다. 그렇게 도난사건의 영향으로 공동체는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도난 방지를 위한 불편함을 자처한다. 이번 1학기 일어난 11건의 현금도난 사건의 여파로 남자기숙사 학생들은 결국 현금소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현금을 일체 사감선생님에게 맡기고 있다. 당연히 즐겨 가곤 했던 동네 매점으로의 발길은 끊길 수밖에 없었다. 현금 등 자신의 물건을 아무 걱정없이 들고 다니고 놓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큰 자유다. 도난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학생들이 누리고 있던 자유이기도 하다. 결국 도난은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불안감을 낳으며 또한 남자기숙사처럼 구조적 변화를 통해 자유를 내려놓기도 한다.

학생 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중 "도난 발생 시 이뤄져야 할 해결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모두 답해주세요" 라는 객관식 질문에서 22명의 학생이 "규칙을 통해 도난여지 줄이기"가 적절한 방식이라 답했다. 규칙을 통해 도난의 여지를 줄인다면,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자유를 포기하게 되었는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야 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도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산마을 고등학교 역시 평일 간 현금을 반납하고 개인 소지품을 사물함에 넣어 잠그는 방식으로 도난을 예방하고 있었다. 산마을 고등학교 조여원 학생회장은 "이런 방식은 절반의 성공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잘 지켜질 수 있는지 물어야 하며 현금을 반납하지 않던 학생들의 돈이 도난당한 사례를 보아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제천간디의 남자 기숙사 역시 현금소지 금지에 대한 규칙이 효과를 가지고 지속될지 의문이 생긴다. 일종의 책임지는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도난이 일어날 여지를 차단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 현금이 오고가는 주말 시간대나 현금을 반납하지 않는 학생들의 대한 해결책 역시 아직은 없다. 또한 모든 돈을 사감 선생님 방으로 모아놓는 것도 위험요소가 존재할 것이며 이를 관리하는 사감과 동장 역시 큰 책임을 떠안는다. 억지로 애써서 지키는 규제는 역효과를 낳기 때문에 서둘러 현금소지 금지에 대한 전망을 논의해보는 게 급선무이겠다.

익명의 범인에게 보내는 실명의 충고.

1학기에 일어난 도난사건 해결과정에서도, 그 후에서도 도난사건 해결과정에 대한 불만사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전 도난회의는 자발적 고백 유도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다면, 이번 해결과정에서는 우리가 도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sns에 장문의 글로 도난사건 해결과정에 대해 비판한 학생 A는 "도난을 저지른 범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현재 방식은 모두가 지치고 의미없는 해결책" 이

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히 실수라고 넘어가거나 이해해주기보단 직접 실명으로 공동체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오히려 범인을 위한 일"이라고 말한 A. "익명의 범인을 잡기 위해 실명을 내걸며 모든 걸 떠안아야 하는 도난 피해자들에게 다가오는 부담이 더 폭력적"이라는 A의 주장대로 학생 71명 중 24명이 '도난을 당한 적이 있지만 해결과정이 힘들고 부담스러워 숨긴 적이 있다'고 답했다. 도난을 저지른 사람의 정체를 모르다 보니 도난을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수많은 의심과 설명을 요구하는 발언이 날아온다. 게다가 71명 중 47명이나 '도난사건 해결과정에서 불만인 지점'이라 답한 '스탑회의로 인해 뺏기는 시간과 체력'을 고려하면 도난 피해를 제보하기는 부담스러워 보인다. 어쩌면 실체 없는 익명고백을 받아내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보단 범인을 찾아낸 뒤 그가 반성하고 책임지기 위해 공동체가 도와주자는 A의 주장은 이상적이다. 이러한 주장은 〈표 1〉을 보듯이 당연히 A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리라. 음주와 폭력사건의 당사자들은 모두 실명으로 공동체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난은 왜 예외로 치부하는 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28명의 친구들을 대표로 A는 말하고 있는 듯하다. 다만 걱정되는 지점이 하나 있다. 도난을 저지른 친구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공동체의 상처와 가치의 훼손은 어떻게 해결할까. 누군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알리바이를 물어가면서 누군가를 의심해야 하고, 어쩌면 도난을 저지른 자는 공포감에 거짓말 속으로 숨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현재의 도난 해결방식보다 더욱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극단적인 소지품 검사 또는 서로 예민해지는 알리바이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하자.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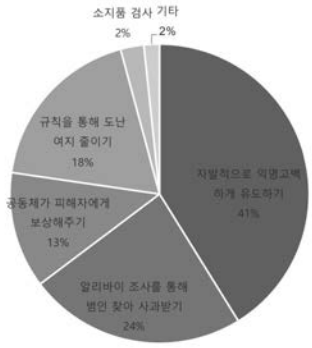


한 과정에 대해 숙고하지 않는 이상 학생 A가 바라는 이상적인 해결은 힘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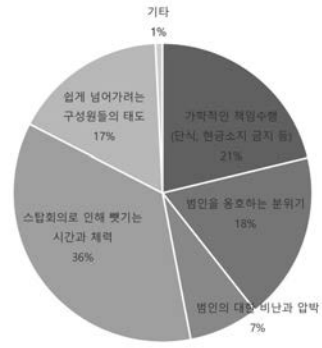
얘를 범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대체적으로 우리는 도난을 행한 정체불명의 이를 도난범이라 칭한다. 도난을 저지른 범죄자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실제로 도난행위는 사회에서 범죄로 정의내리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해석이다. 하지만 도난을 저지른 사람을 부르는 데 있어서도 각자 의견과 소신을 가지고 그를 칭한다. '그 분'이라는 이름부터 '훔쳐가신 분', '가져간 사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인이란 호칭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어쩌면 이러한 부분은 공동체가 훔쳐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맥락을 같이 하지 않을까. 앞서 설명한 설문조사 중 "도난사건 해결과정에서 불만인 지점을 말해주세요"라는 질문에서 24명이 '범인을 옹호하는 분위기'라 답했고 반대로 10명이 '범인의 대한 비난과 압박'이라 답했다. 기존 도난사건 해결방식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24명이 겪는 불만지점이 범인을 옹호하는 분위기라는 사실만 봐도 우리에게 '범인'은 그다지 살갑지 않은 존재다. 어쩌면 당연하다. 도난으로 인해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많은 시간을 회의에 쏟아가면서

<표 1>
도난 발생 시 이뤄져야 할 해결 방안으로 적절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71명 응답)



<표 2>
현재 도난사건 해결과정에서 불만인 지점들은?
(71명 응답)



모두 피폐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인식이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학생들의 얘기는 도난범의 정체에 대한 추측으로 난무하거나 분노와 욕설로 얼룩진다. 도난회의 초반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존칭을 섞어가며 훔쳐간 이에게 '기회를 드린다' 고 설득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난범' 과 '그 xx' 로 변질되고 만다. 결국 그런 상황 속 구성원들간의 발언 속에서 갈등이 탄생한다. 한명씩 돌아가면서 도난 사건에 대해 생각을 밝히는 시간 동안 누군가는 '범인' 을 밝혀낸 뒤 처벌을 요구하고 누군가는 '그 친구' 를 압박하고 응징하려는 의견에 반대한다. 앞서 도난발생의 대한 다양한 사례를 언급하셨던 미리강은 "도난행위를 뒤늦게 털어놓았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익명이라도 고백한다는 건 매우 두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며 "도난사건의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해도 고백을 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이자 기다리고 북돋아줘야 하는 문제" 라고 답했다. 2013년도의 진행했던 도난관련 간담회 중 '지금 도난간담회를 하는 분위기 자체가 도난문화' 라는 학생의 발언을 지금 이곳에 불러올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도난을 저지른 사람을 대하는 언어와 분위기에서 '범인' 과 '친구' 가 만들어지고, 저지른 사람 역시 이에 따라 본인의 행동을 생각하고 마음을 잡는 계기가 바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도난을 말하고 서로를 북돋아주는지에 따라 결국 도난사건을 생각하는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대체 우리는 어떻게 도난을 말해야 하고 어떤 언어로 정체불명의 학생을 불러야 한다는 것일까.

중요한건 마음이야.

*지혜학교에서도 도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딜가나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도난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서로 믿고 지지해주시고 힘내세요. 도난이 없어질 순 없지만 이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분명히 나아지리라고 믿고 희망이 보입니다. 서로 끌어주고 감싸주는 제천간디학교 학생들이 너무 보기좋습니다. 이제 멋진 축제 보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위 내용은 2013년 제천간디로 교류를 왔던 지혜학교 학생이 쪽지에 남긴 글이다. 교류학생으로 머물던

당시 도난사건이 발생했고 이 학생 역시 제천간디 학생들과 함께 도난사건 해결과정을 함께했다. 결과가 어찌되었든 외부인이었던 교류학생의 글 속 묘사되는 간디인의 모습은 뭉클하면서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허나 우리의 도난사건 해결과정은 항상 아름다운 게 아니다. 공동체를 위해 다 같이 모여 스탑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체력을 빼앗는 공동체를 원망한다. 어쩌면 도난사건 해결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공동체가 함께한다는 이유로 서로의 시간을 쏟아가면서 극한의 상황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건 역효과를 낳는다. 체력적으로 지친 이가 졸기라도 한다면, 그는 '공동체 의식' 이 부족한 학생이 되버린다. 미리강 역시 이러한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다. "지치면 잠시 멈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모두 멈추기를 두려워한다. 북돋아 주고 지치지 않게 배려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도난을 저지른 친구의 고백을 유도할 것"이라는 말했던 미리강은 결국 이런 과정 자체가 큰 배움이라며 말을 맺었다. 꼽을 만한 사례로는 우리의 교장 병곤쌤의 캠페인을 거론할 수 있겠다. 매번 가족회의 때마다 사건 해결의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되지 못한 사건을 거론하며 '잊지 않으려는' 캠페인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신선한 시도로 평가 된다. 또 하나의 사례로는 산마을 고등학교의 도난 매뉴얼을 거론하고 싶은데, 매뉴얼이 매우 구체적이다. 스탑회의에 대한 절차와 중요성부터, 도난사건에 사용할 시 기피해야 하는 단어선택까지 도난에 대한 모든 과정들이 명시되어 있는 매뉴얼을 학생들 간의 합의를 통해 정리해 놓았다. 어쩌면 도난에 대한 뚜렷한 해결주체나 기조 설정이 없어 늘 갈팡질팡 했던 우리에게 기본적인 매뉴얼, 혹은 자료 보존은 필요할 것이다. 이성적으로 정리된 대응책과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 주는 마음이 있다면, 해결과정에 대한 부담도 감소하지 않을까.

미워도 다시 한번.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다. 결국 필자는 도난을 저지른 친구를 불러내는 방법도, 공동체가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방법도 명확히 밝혀낼 수 없었다. 현재의 익명 고백 유도 방식과 스탑회의 방식에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지만 역시 다른 방법을 실행하기에는 부담이 존재한다. 다만 한가지 바라는 점이 생겼다면, 지혜학교 학생이 쪽지에 남긴 그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길 바란다는 점이다. 해결방식의 방향성을 떠나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 주고, 흔들어줘야 한다. 좌절보단 희망을, 후회보단 용기를 심어줘야 한다. 현재처럼 익명고백의 방식이던 간에, 조사를 통해 범인을 찾는 방식이던 간에 우리의 분위기와 마음가짐이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도난을 낙천적으로 바라보자는 얘기가 아닌, 심각성은 가져가되 공동체에 힘을 실어주는 게 바람직하단 얘기다. 해결방식이 어찌되었든 결국 모두가 행복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실망과 좌절은 어찌 보면 당연한 감정이지만 그 감정 속에서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해해보는 과정이 큰 배움이다. 그리고 그런 배움을 겪어내고 있는 우리는 박수 받아 마땅하다. 도난사건 자체는 우리에게 큰 시련이지만 그 시련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 우리. 미워도 다시 한 번 가보자. 우리가 도난 맞은 건 물건이 아닌 다른 것일지도 모르니까.

그녀의 옷장 속으로

권윤서 기자(3학년)

제천간디 모두가 인정한 패피[1]. 독보적인 스타일로 매일 아침마다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이번 호의 주인공! 박한별(3학년)양을 만나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도전하지 못했던 크롭티부터 네온색 베레모까지. 모든 패션을 정복한 한별이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지금 들으러 갑시다~!

Q.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간디학교 3학년 박한별입니다.

Q. 옷을 언제부터 좋아했나요?

저는 7살 때부터 좋아했어요.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청바지 안에 내복을 입고 유치원에 가라고 하는데, 내복을 입고 청바지를 입으면 다리가 두꺼워 보여요. 그게 너무 싫어서 엄마랑 울면서 싸우고 내복 안 입고 다녔어요. 그 때 엄청 추웠어요(웃음). 그 때부터 제가 추위를 안 타기 시작했죠.

Q. 어떤 스타일의 옷을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이 없어요. 그냥 예쁜 옷이면 다 입습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Q. 한달에 옷 구매하는 데 쓴 금액은?

일단 금액만 말하면 다들 놀랄 거 같은데, 저희 엄마가 보면 큰일나요. 저는 20만원 정도 쓰는 데 중요한 건 제가 제 옷을 팔아서 새로운 옷을 사는 거기 때문에 엄마 돈을 가져다 쓰진 않아요. 엄마가 진짜 한푼도 안 줍니다.

Q. 특이한 옷을 많이 입는 걸로 유명한데 옷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제가 알려드리면 다 살 거니깐 이건 비밀이에요.(웃음) 제가 열심히 알아낸 비법이니깐 절대 알려줄 수 없어요.

Q. 옷 싸게 사는 비법이 있나요?

1) 패션피플. 옷 좋아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고 옷 잘입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도 비밀이에요. 제가 알려드리면 다 살 거잖아요. 대신 최저가 옷 찾고 싶으면 부탁하세요. 보세는 같은 옷이어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2~3시간만 찾으면 3만원짜리 옷도 7천원에 구할 수 있어요.

Q. 옷 입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매일 다른데 튀고 싶을 때는 특별한 아이템을 모아서 입고, 예쁘게 입고 싶은 날은 무난한데 예쁜 옷. 저만 예쁘게 생각하는 옷보다는 모두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는 거 같아요.

Q. 학교에 본인이 유행시킨 옷이 있나요?

저희 학교가 열려있긴 하지만 패션이랑 노출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1학년 때는 크롭티을 입고 브라가 비치는 옷을 입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크롭티랑 브라 비치는 시스루의 막을 열었어요. 제가 입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고 심지어 크롭티는 기본템이 되었어요. 대단하죠?

Q. 사진을 자주 찍는데 가장 좋아하는 포즈가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웃는 게 별로 안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늘 무표정으로 찍었어요. 근데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웃는 게 더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웃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열심히 웃으면서 찍고 있어요.

Q. 항상 맨발로 사진을 찍던데 신발은 왜 안신나요?

제가 슬리퍼도 없고 신발도 없어요. 그래서 예쁜 슬리퍼가 아니라 그냥 아무 슬리퍼나 막 신거든요. 근데 사진 찍을 때 핑크색 옷을 입었는데 초록색 슬리퍼 신으면 이상하니깐 차라리 벗고 찍자! 해서 맨발로 찍습니다.

Q. 소문으로는 패션화보를 찍었다던데 어떤 화보였나요?

스타일쉐어라는 패션에 관한 정보 공유 혹은 의류 판매를 하는 앱이 있는데 이번에 브랜드를 출시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홍보하는 화보를 찍게 되었습니다!

Q. 화보 찍을 때 어땠나요?

진짜 신기했어요. 섭외 문자가 딱 오자마자 이건 사기겠구나 하고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공식 스타일쉐어[2]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디엠[3] 보내달라 했는데 진짜 온 거예요. 와 진짜 레전드다 해서 엄청 설랬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잘 안 아픈데 갑자기 금요일 밤부터 엄청 아픈 거예요. 기모 바지에 기모 후드랑 찜질팩하고 있는데도 춥고 떨렸는데 해열제 먹으니깐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자다가 밤에 깨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들리는 거예요. 눈도 흐릿흐릿해지고. 그래도 정신을 똑바로 붙잡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쓰러졌어요. 그렇게 정신을 잃어서 2시간동안 복도에 있다가 방으로 돌아와서 다시 잤어요. 다음날에도 계속 아파서 집에 가서 병원에 갔는데 장염이더라고요. 2일동안 죽만 먹다가 촬영을 갔는데 딱 카메라 앞에 서니깐 괜찮아졌어요.(웃음) 근데 스튜디오 엄청 신기했어요. 큰 스크린에서 계속 찰칵찰칵 찍고 향기롭고 좋은 노래도 나오고 스타일쉐어 직원분도 엄청 멋있었어요. 눈웃음이 진짜 예뻤어요. 화보도 예쁘게 나오고 진짜 행복했어요.

Q. 본인이 예상하는 2018 F/W[4] 시즌 유행 아이템을

알려주세요.

작년부터 호피가 유행이었어요. 한 시즌 유행하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기본템으로 자리잡았으니깐 일단 호피는 무조건 사세요. 퍼자켓[5]도 사세요. 아니에요 사지마세요. 제가 살거예요. F/W 시즌에는 동묘가세요. 아우터 엄청 싸게 살 수 있습니다.

Q. 졸업하고 패션 관련된 일을 할 건가요?

음 제가 꿈이 있어요. 졸업하고 바로 에버랜드 알바를 할 거예요. 환상의 나라 부르면서 춤 추는 걸 하고 싶어요. 에버랜드 기숙사에 살면서 알바를 1년정도 하고 난 다음에 패션 잡지사에 들어갈 거예요. 보그 같은 잡지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박한별에게 패션이란?

박한별 그 자체입니다.

한별이의 인터뷰 잘 보셨나요? 이번 F/W시즌에는 호피 꼭 사세요~! 한별이가 장담한 유행 아이템입니다. 한별이의 반짝이는 패션들이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에 @_star_03 검색해주세요! 통통 튀는 한별이의 패션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

2) 패션, 뷰티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3)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4) fall / winter 이라는 뜻으로 가을 겨울 시즌을 뜻함.
5) 털이 복슬복슬한 자켓

I licked it, so it's mine.

9.00-20
8PR 6 NYLON

쌍둥이 이야기

이병건

등장인물

병우(02학번) – 3분 동생

병건(나)(02학번) – 3분 형

*특별출연 – 하이디, 박우제(15학번), 이한슬(13학번), 깡지쌤(02학번)

*특별 BGM – '나이 서른에 우린', '서른 즈음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나이 서른에 우린 어디에 있을까~ 어느 곳에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

작곡가이자 시인 백창우씨의 '나이 서른에 우린'이라는 곡의 앞 소절 가사다.

간디학교를 다닐 때 배우고 흥얼거렸던 노래인데 오지 않을 것만 같던, 그저 멀게만 느껴졌던 나이 서른이 딱 지금 내 나이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간디 락스타 연합'을 줄여 '간락연'(현재'지락')이라는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서 병우는 기타, 나는 드럼을 연주하며 음악을 즐겼었는데 고등학교에서도 쭉 이어 가다가 결국 진로로 택했다. 졸업 후에 대학도 음악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다. 그것도 같은 대학교...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공익 근무도 같은 근무지였다. 병역 만큼은 제발 좀 서로 떨어져 보자 했지만 결국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 봐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도 모자라 병역까지 함께 할 줄이야. 대학교 다닐 때는 함께 밴드 활동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함께 만나고 거의 같은 삶을 살았다. 똑같은 인생... 물론 쌍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을 순 없는 법. 일단 성격도 다르고 다루는 악기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달랐다. 뭐 가끔 우연인지 필연인지 같은 패션으로 서로 깜짝 놀랄 때도 있었지만 분명 다른 부분이 많았다. 서로 죽일 듯 티격태격하면서도 언제나 늘 함께한 우리.

병우는 주로 기타 세션(레코딩, 라이브 연주활동) 일을 하고 있는데 병우의 연주 경력은 정말 화려하다. 대표적으로 소 몰아간다는 가수 '박효신', 작곡가 '윤상',

02학번 이병우(동생)

02학번 이병건(형)

안테나뮤직 소속 가수 '박새별', 슈퍼스타K 2 출신 '존박' 등 여러 가수들 라이브 세션 활동과 뮤지컬 '미녀는 괴로워' 하우스 밴드 기타, MBC '복면가왕' 하우스 밴드의 기타 세션으로도 활동했다. 나는 병우처럼 경력이 화려하진 않지만 박새별, 존박 라이브 세션을 함께 했다. 나는 주로 레코딩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학원 강사, 개인 레슨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밴드팀 활동도 여러 팀을 함께 했었는데 그중에 한 팀은 정규 2집까지 낼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팀 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단독 공연을 끝으로 쌍둥이 역사 속으로 영영 사라진 밴드도 있고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나무늘보처럼 느림보 걸음으로 움직이는 팀도 있다. 심지어 음악 스타일도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뭔가 잔잔하면서 느릿느릿하다. 이름 따라간다고 했던가... 그래서인지 팀 이름도 하필 '나무늘보'이다.

음악이라는 일은 직장인처럼 칼같이 시간 맞춰서 출퇴근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거나 그런 안정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패턴이 대부분 불규칙하다. 그러다보니 며칠 밤을 꼬박 새는 일도 있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는 날도 있다. 물론 음악이라는 직업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활패턴은 그렇다. 일이 많을 때는 즐겁기도 하지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앓아누울 때도 있다. 뭐든지 건강이 최고다. 일이 없을 때는 보통 집에서 쉬거나 개인적인 음악 작업을 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거나 본가에 다녀오기도 한다.

음악생활을 하다 보면 즐거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공연'이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설레이고 공연하는 중에는 관객들과의 소통이 재밌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난 뒤의 여운은 오래 남아서 좋은 추억거리가 된다. 두 번째로는 '교육'이다. 강사로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인 역할도 하지만 학생들과 소통하며 젊음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와 정 반대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도 즐겁다.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배움의 유익과 보람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세 번째는 바로! 음악을 통해서 간디학교에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에 '간디 문화의 밤' 행사 때 공연을 했었는데 그전에도 몇번 공연을 한 적이 있었지만 참 오랜만에 공연을 하게 되어 너무 좋았다. 공연하기 며칠 전에 문화의 밤 홍보물에서 '조상님들이 오십니다!... 아니 화석님인가?ㅋ'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다. 우린 그때만 해도 단순히 '음... 우리가 졸업한 지 좀 됐나보다...' 정도였는데 학교 정문에 들어서는 그 순간! 학교를 누비던 과거의 회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감과 동시에 비로소 '아 우리가 진짜로 조상님, 화석님들이 되었구나'라고 마음속 깊이 확 깨닫게 되었다. 운동장 농구 코트부터 해서 건물 외관과 내부시설까지 등등 많이 달라져 있었다. 유일하게 BMW 생태화장실만이 그때 그 시절 특유의 향기와 모습 그대로 그 품위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1학년 교실 뒤 학교 다닐 때 02학번 동기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벽화가 있었는데 졸업하고도 계속 남아있어서 늘 그대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벽화가 없어진 걸 보고 진짜 많이 변했다고 새삼 느꼈다. 우린 그저 조상, 화석이란 단어의 느낌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추억에 젖어 간디 기운을 받아 조상, 화석들의 공연을 열게 되었다.

그날 공연은 '하이디 밴드'로 왔었는데 '하이디'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병우의 와이프이다. 하여튼 이 둘은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만남을 통해 결혼에 성공했다. 신혼 부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서로 음악을 하다 보니 병우 부부와 3분 형이자 하이디에게는 시아주버님인 나. 이렇게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아주 머어~엇진 밴드로 간디학교에서 공연을 하게 된 것이다.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간디학교 쌤들과 재학생분들 덕분에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졸업생으로서 공연을 통해 재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즐거움은 정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큰 영광이다. 공연도 하고 꾸준히 음악 작업을 하면서 지내다가 또 학교에서 공연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

앞에서 언급했던 본가가 제천간디학교 옆인데 가끔 내려갈 때마다 학교에 가면 쌤들이 반갑게 맞아주신다. 또 3년 전에는 제천간디에서 특별활동 수업으로 드럼을 가르친적이 있었는데 그때 배웠던 학생들이 기억해주고 먼저 다가와 인사도 건네주기도 한다. 간디 in 글 기자 4학년 박우제군이 그때 드럼을 배웠었다. 지금은 키도 많이 크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었다. 6학년 이한슬양도 병우에게 기타를 배운 적이 있는데 요즘 덕산에 있는 빵 카페에서 일을 한다고 했다. 이렇게 후배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해주니 너무 감동이었다. 제천간디 02학번 동기친구도 만난다. 그 친구가 바로 모든 옷을 최고로 만드는 깡지쌤이다. 학교 갈 때마다 반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도 자주 못 가니 아쉽다.

현재 우리는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데 나는 강동에서 고독? 을 즐기며 독립생활을 하고 있고 병우는 결혼을 해서 강서에 따로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지내고 있다. 동쪽, 서쪽 을 지키며 각각 다른 곳에서 따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음악은 함께 하고 있다. '모리아 워십'이라는 팀에서도 함께하고 있고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꿈의 학교'에서도 강사로 함께 일하고 있다. 그 외 밴드공연이나 행사 등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다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들의 음

악생활이 벌이가 막 좋지는 않아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요즘이다. 앞으로도 쌍둥이의 음악생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을 재학생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졸업을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멋진 청년들, 조상님들, 화석님들이 될 텐데 현재 다니고 있는 간디학교에서의 귀한 시간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좋은 추억을 간직하길 바래본다. 그리고 졸업 후 서른 즈음에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추억이 떠오른다면 언제든 학교에 찾아와 고향의 향수에 젖어들어 쉼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횡설수설 하지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글을 쓸 수 있게 해준 멋진 간디in '박우제' 글 기자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유미의 세포들

김윤하(선생님)

★★★★★

공포의 외인구단, 신의 아들, 아기공룡 둘리, 맹꽁이 서당, 굿바이 미스터 블랙, 불새의 늪, 우리는 길 잃은 작은 새를 보았다, 아르미안의 네 딸들, 궁, 불의 검, 노다메 칸타빌레, 요츠바랑, H2, 식객, 만화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신들의 봉우리, 어메이징 그래비티, 태일이, 굽시니스트(시사in), 정훈이(씨네21), 한겨레의 박재동 만화들...

급하게 떠올려본 만화들이다.

어려서부터 만화에 푹 빠져 살았다. 또래 친구들은 '만화 가게' 보다 '오락실' 을 더 좋아했고, 대부분 용돈의 사용처는 문방구 앞 싸구려 오락기나 동네에 서너개씩 있던 전자오락실이었다. 우리세대는 전통적인(?) 만화 가게의 쇠락기였고, 20대에 다시 현대화된 만화방이 나오기까지 긴 암흑기를 겪었다.

왜인지 남들 다 재미있어하는 전자오락에는 흥미를 갖기 어려웠으나 동네의 어두컴컴한 만화가게에는 빠져들었다. 딱딱한 나무의자와 조악한 책장, 켜켜이 쌓여있는 단행본 만화 사이의 비좁은 틈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보았던 만화들이 공포의 외인구단(이현세), 신의 아들(박봉성), 불청객(고행석) 등이었다. 대부분 20권을 넘어가는 분량 덕에 완독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신의 아들은 아마도 53권이었는데, 일요일 아침에 읽기 시작하면 점심도 거른 채 해거름에 만화 가게를 나서기도)

만화 가게는 용돈이 지출되지만, 친구 집에 가면 공짜로 만화를 볼 수 있었다. 그렇게 핑계 삼아 놀러가서는 혼자서 만화만 보고오던 기억이 난다. 일단, 만화에 빠져들면 옆에서 불러도 대답을 안 한다고 친구들이 '만화귀신' 이라고 공식인정을 해줄 정도였으니... 그때 즐겨보던 만화가 '보물섬' 이라는 만화월간지, 그 안에 둘리, 꺼벙이, 맹꽁이 서당, 20세기 기사단 등이었다. 당시에는 만화가 접해서는 안 되는 불온한 것으로 취급되던 터라 만화만으로 구성된 두꺼운 월간지는 신세계에 가까웠다.

남/여를 엄격하게 구분하던 시절에는 만화도 예외가

아니어서, 흔히 말하는 '순정만화'는 여자들의 것이었다. 하지만, 난 아랑곳하지 않고 시대의 명작들을 섭렵했다. 특히, 황미나(굿바이 미스터 블랙, 불새의 늪, 우리는 길 잃은 작은 새를 보았다 등)의 작품들과 신일숙(아르미안의 네딸들, 1999년 생)의 작품들을 좋아했다. 역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무한한 가상의 세계... 가히 세계관의 확장이었다. 그 최고봉은 아마 김혜린의 '불의 검'이 아닐까?

슬램덩크로 시작된 일본만화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아서 (動畵 애니메이션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노다메 칸타빌레, 요츠바랑, H2, 신들의 봉우리 등도 열심히 읽었다. 이중 많은 책을 학교에 기증하기도 했고 그 덕에 오타쿠[1] 명예회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내 배움과 독서의 절반은 만화로부터 온 것일터 식객, 만화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어메이징 그래비티, 태일이 등 지금도 상식과 깨달음을 주는 만화를 만날 때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주변에도 적극 권하고 있는 바이다.

과거 한겨레신문 그림판 시절부터 박재동 만화들로 시작하여 굽시니스트(시사in), 정훈이(씨네21) 등 인쇄된 매체의 만화는 찾아보는 편이었지만, '웹툰'이라 불리우는 온라인 만화들은 별반 관심이 가지않았더랬다. 어느날 단행본으로 출간된 조석의 '마음의 소리'와 강풀의 '당신의 모든순간'을 보게되면서 궁금해졌던 것 같다. 그 웹툰의 세계라는 것이... 조심스레 요일별 웹툰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어느덧 요일별로 나만의 리스트가 생겨버렸다. 이제는 매일 밤 11시 30분이 되면 나의 웹툰이 올라왔는지 찾아보게 된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웹툰과는 또다른 컷툰(폰에서 한컷씩 좌우로 넘겨보는)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만화'가 유미의 세포들이다. 독자들에게는 무빙건으로 불리우는 이동건 작가의 정신세계가 궁금해질만큼 빠져들고, 나도 모르게 므흣한 미소를 머금게 되는 재기발랄한 상상들. 각자의 머릿속에 다양한 세포들이 서로의 특성과 생각을 공유해 가며 생활하는 또 하나의 사회. 주로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므로 연애세포가 프라임 세포이지만, 거대한 몸을 자랑하는 출출이 세포를 비롯해 감성이 세포, 응큼이 세포, 세수 세포 등도 또한 매력적이고 멋진 세포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탄생비화(출생의 비밀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응큼이 세포를 최애하게 된다. 오랫동안 연재했음에도 여전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유미의 세포들, 언제나 예상과는 다른 전개로 독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작가의 상상력.

오랫동안 만화를 사랑해온 덕후의 입장에서 바라본 '유미의 세포들'의 점수는... 별점 5점 만점에 5.89점입니다.

1) 학교의 만화 동아리 한 때 번창 했으나, 2016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죽음에 관하여

진주열(6학년)

★★★★★

죽음. 단순히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상태이다.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까지는 그럴 것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떨지 진지하게 상상이나 해봤을까? 아무것도 없는 어둠일지, 종교에서 흔히 등장하는 사후 세계가 있을지는 신이 아닌 이상 누구도 모를 것이다.

이 웹툰은 삶과 죽음, 그 사이의 경계에서 신과 만나게 되는 인간들의 얘기를 그리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 부분은 누구도 모르는 영역이기에 설정 자체는 허구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과 그들이 그 곳까지 가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 현실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얘기들임을 알 수 있다.

너무나도 행복했던, 너무나도 비참했던 아니면 뭐 그냥 적당했던 삶들. 작가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것을 느끼길 바랬을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에겐 죽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과 그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돌아보게 해준 작품이다.

책 읽는 게 싫으면 이런 띵작이라도 보면서 한번쯤 고민 해보는 걸 추천한다.

간디인의 짧은 소식

가을축제

매년 5학년들이 준비하는 가을축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년도는 '동화나라' 라는 주제로 축제를 열었는데요.
주제에 맞게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토끼와 거북이 등 어릴 때 한번쯤은 읽고 봐왔던
동화들이라 추억들도 떠오르고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짝을 지어 들어가야되는 부스에 같이 갈 사람이 없을 것을 대비하여 일명 '피리 부는 소년' 을 준비한 5학년들의 센스도 돋보였습니다.

간탄일&한글날

올해에는 한글날과 간탄일 행사를 동시에 진행 했습니다. 먼저 평의회에서 준비한 한글날 행사로 시작 했는데요 띄어쓰기, 맞춤법 OX퀴즈를 하며 하루 동안 외래어 사용을 하지않는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간탄일 행사는 지난 21년의 간디학교의 역사를 돌아보며 퀴즈도 맞추고 케이크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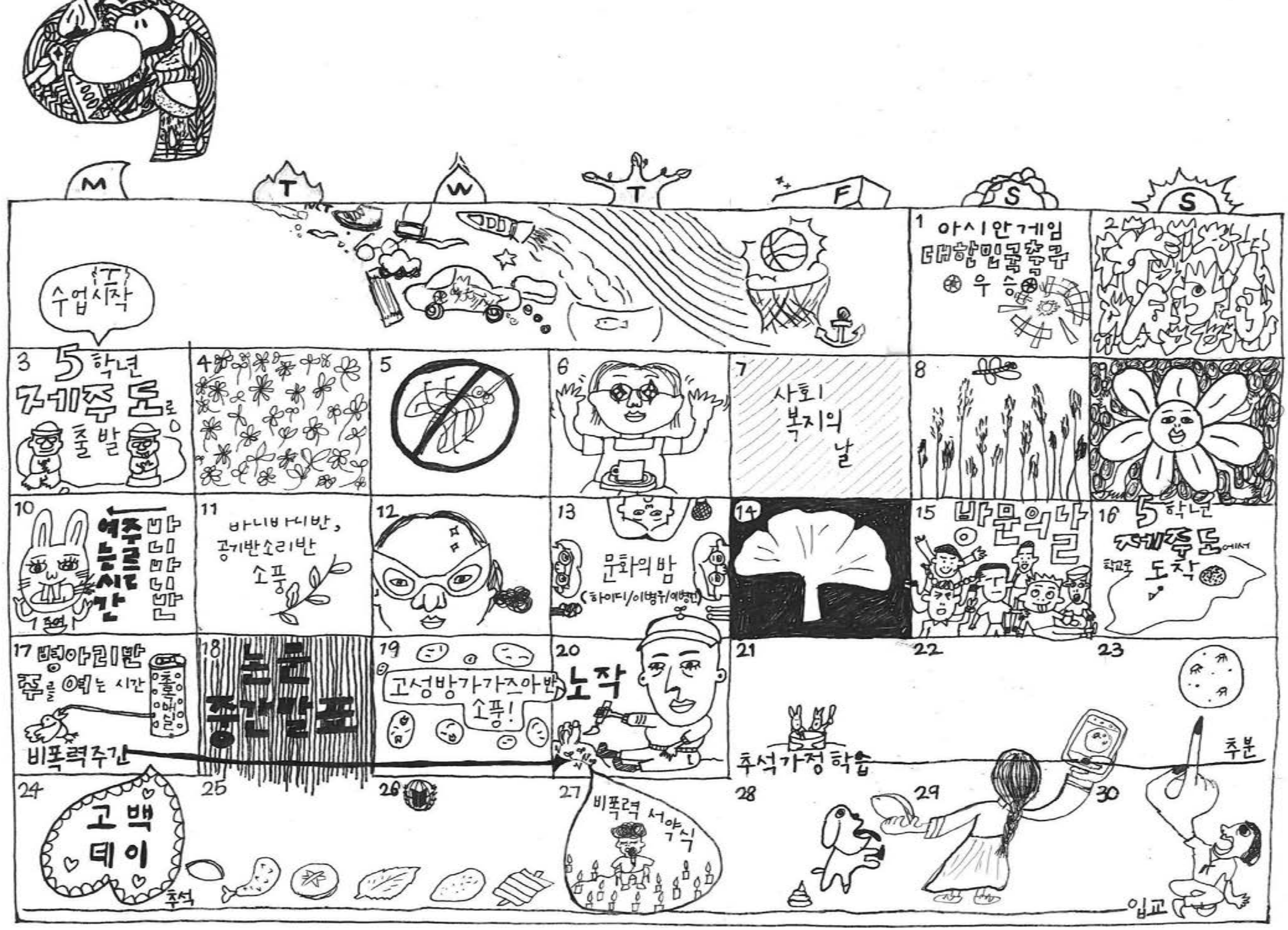
문화의 밤 (하이디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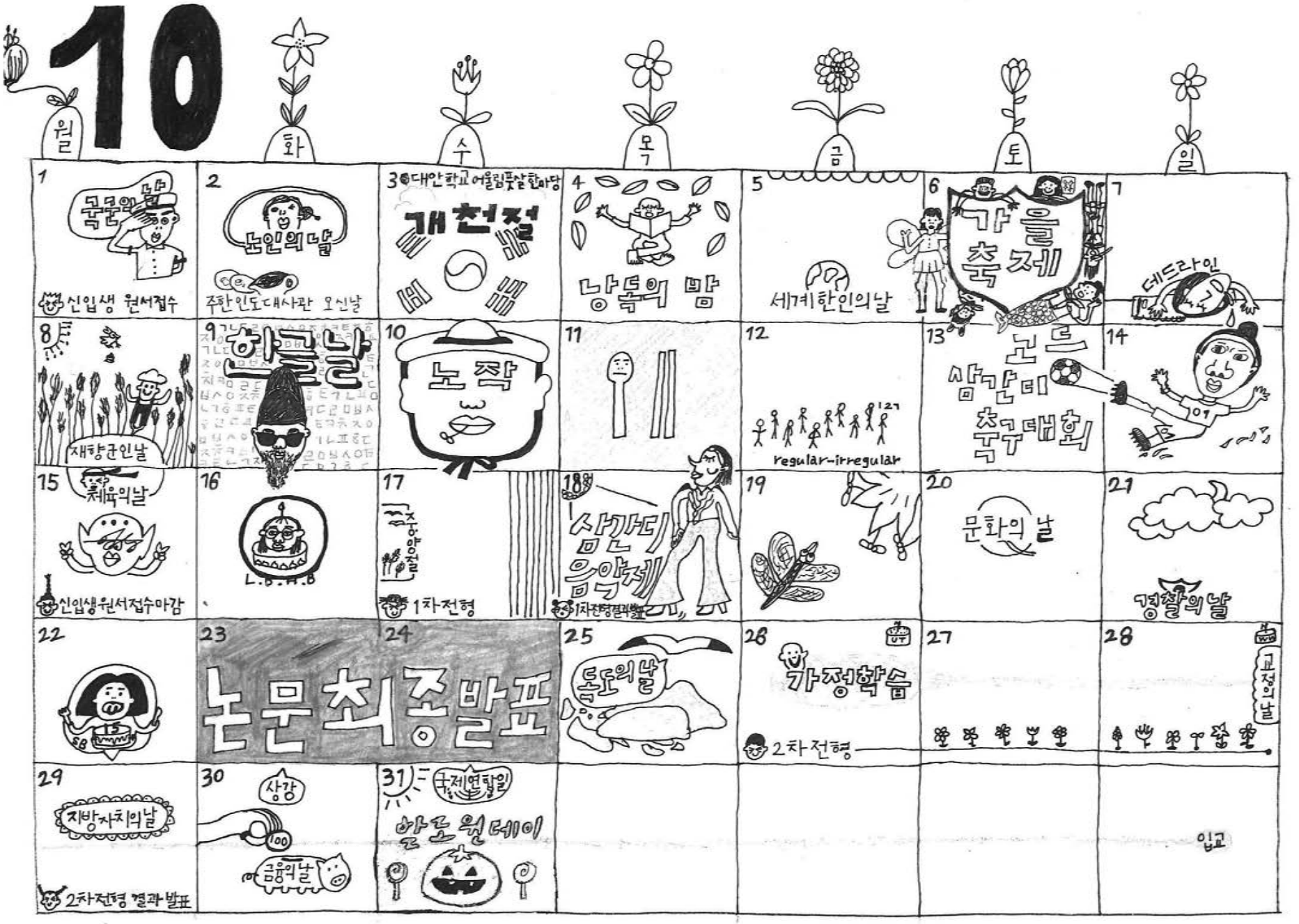
이번 문화의 밤은 하이디 밴드가 공연을 하러 와주셨습니다.
하이디 밴드에는 간디학교의 조상 또는 홈스테이 집으로도 익숙한 벙우, 병건 님과
매력적인 목소리로 노래하시는 하이디님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재치 있고 센스있는 가사들과 음악들도 좋고 대선배님들의 간디학교 썰을 듣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비폭력 서약식

1년에 한번 간디학교에서는 평화와 비폭력정신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 비폭력 서약식을 진행합니다. 3주체의 대표들이 비폭력 선언문을 읽고 모두가 자유롭게 무대에 나와 평화에 대한 나의 생각 또는 내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자유발언을 진행하는데요. 누군간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누군간 친구에게 미안한 일들을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행사가 종료되면 모두가 돌아가며 프리허그를 하며 마무리 합니다.

+뽀나스


9
M
T
W
T
F
S
S
수업시작
1 아시안게임 대한민국축구 우승
2
3 5학년 제주도로 출발
4
5
6
7 사회복지의 날
8
10
11 바니바니반, 공기반소리반 소풍
12
13 문화의 밤
14
15 방문의 날
16 5학년 제주도에서 학교로 도착
17 병아리반 주를 여는 시간
비폭력주간
18 논문 중간발표
19 고성방가가즈아반 소풍!
20 노작
21
22
23
추석가정 학습
추분
24 고백 데이
추석
25
26
27 비폭력 서약식
28
29
30
입교


1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국군의 날
신입생 원서접수
2
노인의 날
주한인도대사관 오신날
3 대안학교 어울림풋살한마당
개천절
4
낭독의 밤
5
세계한인의날
6
가을축제
7
데드라인
8
재향군인날
9
한글날
10
노작
11
12
regular-irregular
13
고드 삼간디 축구대회
14
15
체육의날
신입생원서접수마감
16
L.B.H.B
17
중양절
1차전형
18
삼간디 음악제
1차전형결과발표
19
20
문화의 날
21
경찰의날
22
23
24
논문최종발표
25
독도의날
26
가정학습
2차전형
27
28
교정의날
29
지방자치의날
2차전형 결과 발표
30
상강
금융의날
31
국제연합일
할로윈데이
입교

권윤서 기자(3학년)
이번호에도 마감을 못지켰네요ㅠㅠㅠㅠ 죄송합니다 다음 호부터는 모범기자가 될게요..
수고하셨습니당(´ ∀ `)

김담 사진기자(4학년)
가을호가 나온다는 것은 2학기가 벌써 반이나 지나가고 있다는 거겠죠...
시간 참 빠릅니다아... 겨울호에서 봅시다 안녕!!

김서준 기자(2학년)
이번 기사는 여름 기사에 비해서 탱자탱자 놀면서 쓴 것 같아요. 약간 베짱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다 서면 인터뷰였고, 네 분 모두 국어교사이신 덕분에 맞춤법과 글 정리도 필요없었고요. 인터뷰 참여해주신 네 분께 다시 감사드려요:) 저는 여름호 가을호 둘 다 특집을 썼으니 다음에는 비특집에서 뵈요!!

김재하 삽화기자(4학년)
힝

박우제 편집장(4학년)
편집장으로써 기자들의 모범도 되지 못하고 잘 못 이끌어주었다는 생각에 괜히 자괴감이 들고 미안합니다... 다음 호에는 열심히 하는(모범적인) 편집장이 되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감에서 해방된, 내일 아침에는 부족한 편집장 때문에 고생한 기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 마디씩 해주겠습니다.

윤수민 기자(4학년)
처음으로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

이담 삽화기자(2학년)
첫 스케줄러입니다. ㅎㅎ 처음이라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다음엔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모두 수고했어요!!

이성민 기자(3학년)
봄호와 여름호는 마감 1등이었는데 가을호는 미루고 또 미뤄버렸네요ㅠㅠ 처음 특집으로 찾아 뵙게 되었어요! 막막하기도 했지만 그럭저럭 잘 마무리한 것 같네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 곳 덕산은 정말 겨울 같아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

이재형 기자(5학년)
제주도는 아아주 넓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라던데 재밌는 것들과 멋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보고 있자면 마음을 울리지요. 그 곳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기분 좋은 이야기와 존경스러운 이야기, 마음 아픈 이야기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이야기들도 있어요. 간디인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만든 이야기들이거든요.

이한결 기자 (5학년)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 많은 기사였습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적고자 노력했는데, 쉽지 않네요. 기사는 혼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조연지 기자(4학년)
어찌어찌 끝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조예나 기자(1학년)
요번에도 마감을 못지켰네요 죄송합니다.
참여해준 현지, 재영, 다현, 정우, 정민서 분, 재형오빠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준 서준언니 사랑해♥

최문형 사진기자(5학년)
이번 화보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남아요. 다음 호가 마지막인데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최유경 기자(5학년)
무난하게 일찍 끝낸 호였습니다! 그래도 제주도에서 뵌 경수쌤 후조쌤은 여전히 따뜻한 모습이셨어요. 노노레타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

최현서 사진기자(1학년)
처음으로 화보 찍어보게 되었는데 도와준 문형언니, 윤서언니, 그리고 화보 모델인 한별언니 고마워요! 다음 호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0월 20일까지 간디공동체를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CMS와 물품 후원 등 후원인의 따뜻한 마음은 제천간디장학회, 제천간디학교 체험학습비와 사회 활동비, 대안교육연대 지원금, 덕산지역 아동단체 운영비로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MS후원 403명 1,590건 23,361,000원

강경선 강나영 강명이 강미리 강민택 강상진 강수돌 강승구 강영상 강응택 강재은 강치호 강호수 고경태 고수원 고은주 고지철 고희라 공지환 곽영현 곽용호 구경란 구자민 권승호 권영숙 권호정 김가영 김갑유 김경미 김경민 김경수 김경순 김경자 김경희 김계숙 김광식 김구환 김남수 김대석 김대진 김덕수 김도연 김란경 김명구 김명숙 김명철 김명희 김문혁 김문환 김미선 김미애 김미정 김백영 김병섭 김봉자 김삼부 김상덕 김선화 김선희 김수진 김승진 김아미 김영경 김영규 김영삼 김영숙 김영우 김영철 김왕균 김용규 김용남 김용섭 김용철 김위정 김유태 김윤성 김윤찬 김윤하 김은미 김은숙 김재성 김정라 김정미 김종성 김종우 김종원 김종태 김지식 김지연 김지영 김지혜 김창년 김학규 김헌기 김혁동 김 현 김현식 김현일 김현중 김현진 김혜란 김혜숙 김혜정 김호연 김희균 나동은 나영미 나윤정 남용기 남지은 남호섭 노경수 노경숙 노상규 노선영 도수경 라기호 라성호 마석훈 마정애 문성룡 문신호 민병선 박경애 박경일 박경호 박경희 박동순 박동필 박명란 박미정 박미향 박서영 박선애 박성수 박영문 김숙정 박영선 박인옥 박장식 박진수 박현숙 박혜연 박호성 박환홍 박효정 박후조 박흥식 방대현 배영수 배필늠 백미숙 백병부 변기영 빈중일 서자스민 서홍원 성정미 소언섭 손동훈 손병근 손순희 손정민 손정현 손진근 손진윤 송민혜 송지은 신동운 신윤숙 신주영 신지성 신지수 신한슬 신현정 안두용 안미숙 안성현 안정환 안종철 안주연 안주현 안준영 안진희 안춘자 안효진 양병만 양상모 양송이 양정호 양화숙 양후남 엄상순 여지현 오경석 오명택 오병갑 오보환 오영진 오의석 오정훈 용석희 우성섭 우성호 우종걸 원정석 원현구 유경오 유병식 유선기 유양희 유인수 유일상 유준하 유증선 유지상 유춘자 유택규 유향옥 윤민호 윤보영 윤수민 윤숙경 윤승재 윤양수 윤은주 윤정숙 윤호선 은종복 이경희 이광일 이근행 이기호 이도연 이동우 이명조 이미경 이미숙 이민수 이민주 이민지 이병규 이보완 이 봄 이봉준 이상래 이상복 이상윤 이상현 이선애 이선재 이소안 이수미 이순영 이순화 이슬비 이승섭 이승욱 이승환 이시하 이영주 이용수 이원범 이윤종 이윤철 이은정 이은희 이인호 이재성 이재웅 이정선 이정섭 이정아 이정연 이정열 이정태 이종주 이종태 이준용 이지은 이진우 이철희 이한복 이한진 이향미 이현주 이혜림 이홍구 이효경 임남규 임다은 임반석 임병포 임봉규 임선일 임영빈 임은숙 임진희 장규식 장미자 장영순 장진숙 장화수 장희숙 전경일 전경희 전미영 손현석 전병택 전수미 전영복 전해룡 정나형 정다운 정문자 정상인 정성욱 정연경 정영수 정영숙 정영환 정이영 정재민 정재윤 정정민 정종명 정지은 정 철 정태균 정희정 조경선 조경희 조동일 조미숙 조봉석 조상희 조성은 조숙자 조영도 조옥순 조윤정 조은아 조찬규 조하한 주주자 지명석 진성기 진숙경 진은주 차상진 차영순 채신자 채현자 천희진 최경주 최낙진 최도연 최문택 최민현 최범식 최선주 최선희 최소영 최 숙 최신영 최연호 최영남 최영준 최 용 최인화 최일훈 최재화 최종현 최진웅 최철훈 최홍석 하승렬 하영아 하윤주 하종수 하태광 한광덕 한민경 한 현 허누리 허미경 허영순 형제수산 홍금자 홍수연 홍수정 홍영옥 홍채현 홍현일 황국덕 황둘남 황소연 황현정 (주)우영산업 (주)명보산업개발 덕산LG주유소 (주)어통수산 유원유통 성호종합주방 선미식품

* 김경수 · 박후조 선생님께서 무농약 귤 5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 13창수네 사과즙을 보내주셨습니다.
* 18동진네 무농약 포도 2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 14창범 · 16창하 아버님께서 사무용 가구 보내주셨습니다.
* 주변 분들에게 간디공동체 CMS후원 가입을 권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소식지 받으실 주소, 후원 계좌 변경,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간디공동체는 후원인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제천간디학교 살림터 043) 653-5791 / 팩스 043) 653-5798

제천간디학교지 계간 《간디IN》 2018년 가을 호(통권 47호) / 발행인 이병곤 / 발행 제천간디학교 / 편집장 박우제 / 담당 교사 이은정 / 기자 (학년순) 이지형 이한결 최문형 최유경 김담 김재하 박우제 윤수민 조연지 이성민 권윤서 김서준 이담 조예나 최현서 / 발행일 2018년 10월 19일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선고1리 92-3우편번호 390-852) 전화 (043)643-5971~3 팩스 (043)653-5798 / http://gandhischool.org